

# 문화 서예



1



〈서펜타인 파빌리온의 순간들: 모두를 위한 영감의 공공 공간〉

세계 건축가들이 설계한 23개 서펜타인 파빌리온을 한데서 관람할 수 있는 독특한 전시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다. 영국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는 매년 세계 최고의 건축가에게 미술관 옆 임시 별관의 건축을 의뢰해 파빌리온을 짓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 건축가 조민석이 설계한 파빌리온이 전시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설계한 파빌리온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 2000년부터 설계된 파빌리온을 사진·영상·모형 등으로 보여주며, 자하 하디드·프랭크 게리·장 누벨 등 건축가들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9월 25일까지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 02.736.8050

조민석 건축가 설계한 〈군도의 여백〉 ©Mass Studies, Scapentine

**DDP 여름축제: 디자인 바이브**  
디자인 문화공간 DDP가 더위를 피해 도심 밖으로 떠나지 않아도 도시 그 자체를 피크닉처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피서지로 탈바꿈한다.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돛자리를 대여해주고, 수제 맥주를 비롯해 다양한 먹거리가 마련된다. 저녁마다 디자인과 상상력이 반영된 영화가 상영되고, 콘서트, 마켓, 일일 클래스, 액티비티 등이 펼쳐진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DDP 실내의 공간 전역에서 열린다. 잠 못 이루는 시민에게 추천한다.

**DDP 여름축제: 디자인 바이브**  
도시를 피크닉처럼 즐기는 방법  
8.1(목) - 8.3(토)  
13:00 - 22:00



3

4

**공예@IN&OUT**  
서울공예박물관은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공예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박물관 곳곳에 다양한 작품을 설치하고 있다. 오는 9월까지는 시민 소통 공예 프로그램 '공예@인앤아웃(IN&OUT)' 공모에서 선정된 최민지·최원서의 작품을 전시한다. 어린 시절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수영장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도자 작품 〈CREATING MEMORIES: Swimming Pool〉은 교육동 5층과 공예마당(인마당)에서, 인류세에 있어 기술문명의 폐기물과 같은 잔재가 쌓여 언젠가 만들어질 '이질적인 땅'에 관한 작품 〈얇은 시간〉은 공예마당(바깥마당)에서 만날 수 있다.

9월 8일까지 | 서울공예박물관 | 02.6450.7000



최민지 〈Swimmers〉



5

〈밤 끝으로의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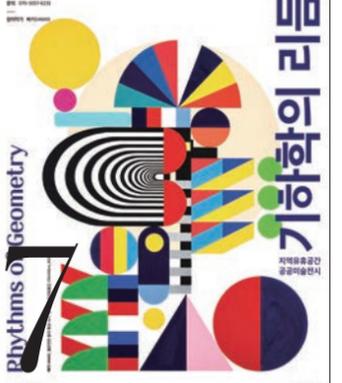
'밤'이라는 주제 아래 뮤지엄한미의 주요 소장품으로 구성된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지난 20년간 미술관이 수집한 1900년대 초반 고전 작품부터 동시대 국내외 작가의 작품까지 총 32명의 10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사진가들이 지난 세기 동안 카메라로 담은 의식 바깥의 풍경을 4개의 소주제로 구분해 '밤의 서사'로 소개한다.

8월 25일까지 | 뮤지엄한미 | 02.733.1315

밤 끝으로의 여행: 전시 전경, 뮤지엄한미 제공

**공공미술 전시〈기하학의 리듬〉**  
서초문화재단은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공공미술 전시를 기획했다. 8월 19일까지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고투몰에서 열리는 〈기하학의 리듬(Rhythms of Geometry)〉은 일상 주변의 사물을 기하학적 요소로 해석, 빠키(VAKKI) 작가만의 유쾌한 시각 언어로 표현한다. 전시와 연계해 전문 에듀케이터와 함께 도시의 인상을 드로잉해보는 아트 투어 프로그램도 오픈하니 자세한 사항은 서초문화재단 누리집을 확인할 것.

8월 19일까지 | 래미안 원베일리 고투몰 G2 출구 | 070.5057.6235



서울예술단 〈금란방〉

서울예술단이 대표 레퍼토리인 창작가무극 〈금란방〉(극작 박해림, 작·편곡 이진욱, 연출 김태형)을 국립극장 무대로 옮겨 새롭게 선보인다. 극장 밖에서부터 관객이 시작되며, 관객을 밀주방에 찾아온 손님으로 설정하는 등 이머시브 형식의 공연으로 주목받았다. 세 번째 재공연인 올해는 아레나형 극장인 하늘극장의 특성을 적극 활용할 계획.

8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 | 02.2280.4114



**옷장 속 사진첩: 그 시절 그 사진을 아카이빙합니다**  
종로문화재단은 1900년대 종로의 모습을 아카이빙하기 위해 종로 옛날사진 공모전 '옷장 속 사진첩: 그 시절 그 사진을 아카이빙합니다'를 추진하고 있다. 개인이 촬영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옛 종로의 모습이 담긴 1980년 이전 사진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전의 총상금은 250만 원으로, 수상작은 디지털 복원 서비스를 거쳐 10월 열린 사진전에 전시된다. 공모전은 8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8

서울예술단



**서울스태이지 2024**  
클래식 음악·국악·재즈·연극·인디음악 등 양질의 공연을 일상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스태이지 2024'가 8월 28일 정오 청년예술청에서 열린다. 이달 공연은 '최정원의 가든파티'로, 뮤지컬 배우 최정원이 주요 뮤지컬 넘버로 구성된 갈라를 선보인다. 시원한 실내 공간에서 즐기는 공연 한 편이 필요하다면 서울문화재단 누리집 (sfac.or.kr/seoulstage)에서 관람 신청을 놓치지 말자.

9

**연극 <당연한 바깥>**  
프로젝트그룹 쌍시옷과 두산아트센터가 공동 기획한 연극 <당연한 바깥>이 개막했다. 작품은 탈북 브로커의 극적 여정을 따라가며 서로 다른 세계의 조우 가능성을 타진한다. 지난해 <당선자 없음>으로 백상예술대상 백상연극상과 대산문학상을 받은 이양구 작가가 대본을 쓰고, 송정안이 연출을 맡았다.  
**8월 4일까지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0507.1358.8480**



12



**서울숲 푸른밤 축제, 별 헤는 서울숲**  
서울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시민공원 서울숲에서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여름밤 낭만과 힐링을 선사하는 축제가 펼쳐진다. 17일과 24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동안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달빛버스킹은 미술쇼·버블쇼와 재즈밴드의 음악으로 채워지며,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숲해설가의 설명을 들으며 자연과 더욱 가까워지는 '별빛산책'이 마련된다. 축제 기간 내내 중앙연못 옆 커뮤니티센터에서는 '자이언트 플라워'를 주제로 전시가 열리고, 플라워 팝업북 만들기 체험에 참여할 수도 있다. 숲 곳곳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으니 시원한 나무 그늘을 찾아 공원에 드르는 것만으로도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13



**'취향의 온도' 특별 프로그램**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에서 상설로 열리는 '취향의 온도'와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이 열린다. 8월 3일 오후 2시에는 작곡가 배승혜와 '나의 클래식 취향 찾기'를 주제로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와 작품을 살펴보고 음악적 사조를 이해해본다. 이어 10일에는 시인 민구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여름의 온도' 강연을 통해 우리만의 여름 온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 방법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 (sf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8월 3일과 10일 |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1층 | 02.3785.3199**

**어린이 음악극 <어린왕자>**  
뮤지컬 배우의 몰입감 높은 연기와 피아노·바이올린 연주가 어우러진 음악극으로 다시 만나는 명작!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로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어린이 음악극 <어린왕자>를 광진어린이공연장에서 만난다.  
**8월 16일부터 18일, 23일부터 25일까지 | 광진어린이공연장 02.2049.4700**

**SeMA 유니버스 <제9행성>**  
서울시립미술관은 올해 의제인 '연결'을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유니버스로 대규모 소장품 기획전을 개최한다. 그중 첫 번째로 남서울미술관에서 개막하는 <제9행성>은 동시대 미술에 함축된 '비인간'에 주목, 인간 중심의 관점을 벗어난 행성적 사유를 통해 다양한 존재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한다. 고창선·원·신정필·염지혜·전보경 등 9명(팀)의 작품 15점이 전시된다.  
**10월 27일까지 |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2층 전시실 | 02.2124.8800**

**누구나 클래식-오페라 갈라 콘서트**  
오페라 역사에서 위대한 작곡가로 꼽히는 베르디와 푸치니의 대표작을 한자리에서 감상하는 갈라 콘서트가 열린다.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의 테너 조민규가 해설자로 나서 친근하고 즐거운 오페라 감상을 돕고, 정치용이 지휘하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오른다. 티켓 가격은 최소 1천 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 관객이 직접 결정해 예매하는 '관람료 선택제'를 도입해 시민 누구나 좋은 공연을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8월 16일 오후 7시 30분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02.399.1000**



14



15



# 여름 바캉스 문화예술 가이드

거세게 쏟아지던 장맛비가 풀러가니 후덥지근한 여름밤이 이어지는 요즘. 서울 시내 곳곳은 저마다 다양한 즐길 거리로 시원하게 무장하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더위를 피할 것만 아니라 예술적으로 더 뜨겁게 보내보는 건 어떨까.



# 섬에서 보내는 특별한 여름 노들섬K-컬처 특별주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노들섬이 올여름, K-컬처의 다채로운 물결이 출렁이는 예술섬으로 변화한다.

2024년 1월 1일 동틀 무렵, 노들섬. 새로운 한 해에 떠오르는 태양의 첫 순간을 맞이하러 연인 혹은 가족 등 삼삼오오 1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노들섬은 동해 바다는 아니지만 도심 속 아주 가까운 곳에서 새해 일출을 볼 수 있는 명소로 '핫'한 장소다.

노들섬은 봄이 되면 따스한 햇살과 살랑거리는 바람이 함께하는 소풍 장소가 되고, 여름이 되면 뜨거운 태양의 기운이 식어가는 저녁 무렵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오는 산책 장소가 된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한강에서의 화려한 불꽃놀이를 한눈에 조망하는 숨은 명당이 된다.

여기에 서울문화재단이 2024년 서울시로부터 노들섬을 위탁 운영하게 되면서부터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예술섬'으로 나아가는 뜻을 본격적으로 올렸다. 지난봄 '아트페스티벌\_서울'의 첫 번째 축제인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초여름 서울비엔날레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으며, 가을에는 한강노들섬클래식을 통해 발레와 오페라 공연으로 노들섬의 예술적 감성을 이어간다. 그리고 겨울에는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과 함께하는 업사이클링 대형 크리스마스 아트트리를 설치해 소셜미디어 감성으로 사진 한컷 남기기 좋은 장소로 단장하고 방문객에게 즐거운 기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장마가 끝나고 태양이 내리쬐는 8월, 노들섬은 색다른 방법으로 두 가지 문화예술 바캉스를 제안한다. 서울문화재단은 노들섬 인근 민간 및 공공기관과의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 '노들컬처클러스터' 구축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연을 확장하고 있다. 8월 노들섬에서 선보이는 콘텐츠는 이러한 관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 'K'를 위한, 'K'에 의한 공연주간

우선, 세계가 사랑하는 K-팝과 K-컬처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노들섬 K-컬처 특별주간을 진행한다. 먼저, 문화가 흐르는 예술섬 노들 'K-컬처 특별주간'을 맞아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과 함께 8월 9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노들섬 잔디마당 야외무대에서 Look at ME '청년 마음 콘서트'를 개최한다. 마음속 이야기를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스텔라장과 음악으로 낭만을 전하는 윤마치MRCH, 청년들의 고민과 마음을 위로하는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이 뮤지션으로 참여한다. 마음 건강을 콘셉트로 하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K-팝 기반의 공연과



열정적인 밴드 연주를 통해 한여름 밤 청년들에게 음악을 통한 마음 건강 치유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건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연 관람을 원한다면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공식 인스타그램 (@amorepacific\_afaf)과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8월 10일 노들섬 잔디마당 야외무대에서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약 3시간 동안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협력해 <스페이스 공감>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연다. EBS <스페이스 공감>은 20년 역사를 가진 지상파 유일의 대중음악 라이브 공연 프로그램이다. 가요·팝·록·재즈·힙합·클래식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라이브 공연을 기획하고 다수의 콘텐츠로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대중음악의 예술성과 다양성을 제시해왔다. 2004년 4월 첫 방송 이후 20년간 3,200여 회 넘는 규모의 라이브 공연을 진행했으며, 그중 1,600편 이상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한 바 있는 팬층이 매우 두터운 프로그램이다. 2007년 신인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로 장기화와 얼굴들·데이브레이크·실리카겔·설SURL 등 17년간 170팀이 넘는 신인을 발굴하며 음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 20년 역사를 기념하며 마련한 콘서트에는 2005년 결성해 현재까지 12년간 청중의 삶을 노래하며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국민 인디밴드 '브로콜리너마저', 역시 같은 해 결성해 감성적이면서도 강렬한 비트, 멜로디를 특징으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는 '서울전자음악단', 그리고 인디밴드로는 드물게 전 세대를 사로잡는 히트곡을 쓰고 대형 뮤직 페스티벌에 헤드라이너로서는, 1992년생 원승이더 친구들이 만든 밴드 '잔나비'의 3팀 3색 콘서트가 이어진다.

8월 11일은 DJ와 함께하는 K-팝 페스티벌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노들섬 잔디마당 야외무대에서 개최된다.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한국 대중가요를 토대로 모든 사람을 춤추게 만드는 디스코뮤직의 연금술사 '타이거디스코', 1990년대 감성과



작법을 장착한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 박문치, 2000년대 최고의 여성 그룹 싸이의 보컬이자 WSG 워너비의 멤버 '이보람', 승복을 입고 춤추고 노래하며 믹싱하는 EDM 독경 DJ '뉴진스님'과 함께 K-팝을 새롭게 즐기는 시간을 가진다.

**휴식 공간에서 동시대 문화를 담은 전시 공간으로**

노들섬은 휴식 공간이던 노들라운지를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중이다. K-컬처 특별주간에는 노들라운지에서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과 서울문화재단이 협력해 AI를 비롯한 최신 기술과 전통 방식의 소통에 관한 체험형 전시 <랜덤 다이버시티 2024: 더 레터>를 8월 1일부터 두 달간 연다. 크리에이터 그룹 '디스크리트레이블'이 준비한 이 전시는 지금, 한국의 2030 청년 세대가 가진 고민을 나누고 공감하며 마음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관람객의 참여를 통해 청년들이 자신을 돌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생성형 AI 기술과 '편지'라는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교집합에서 진정한 마음 공감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기존 전시 공간인 노들갤러리 2관에서는 EBS와 협력해 <스페이스 공감>이 기록한 한국 대중음악 2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20:04-20:24>가 8월 11일까지 개최된다. 2004년 시작해 꾸준히 진행한 라이브 공연과 방송을 토대로 올 초 발표한 '2000년대 한국대중음악 명반 100'을 전시로 재구성했다. 시공간을 초월해 2000년대 한국 대중음악을 여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섬을 즐기는 가장 특별한 방법, 노들컬처캠핑**

또한 노들섬은 올해 야외 대형 무대를 조성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가로 20미터, 세로 5미터에 달하는 대형 LED 스크린을 활용해 영화를 상영한다. 5월 말 영화 <태양의 서커스 월드 어웨이>를 시작으로, 6월 3주 차에는 뮤지컬 영화 구간을 운영했다. 오는 8월에는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음악 영화와 애니메이션 영화를 상영한다.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음악 영화 바캉스 '노들컬처캠핑'이 진행된다. 1주차(13일부터 16일까지)에는 영화 <레이>

<엘비스>, <로켓맨>, <보헤미안 랍소디>를 차례로 상영해 전설의 가수 레이 찰스 Ray Charles · 엘비스 프레슬리 Elvis Presley · 엘튼 존 Elton John · 프레디 머큐리 Freddie Mercury 의 음악을 만난다. 2주차(20일과 21일)에는 <샤인>, <위플래쉬> 등 천재 뮤지션에 관한 영화를 이틀간 상영한다.

3주차(27일부터 31일까지)는 애니메이션 주간으로, <모아나>, <니모를 찾아서>, <유령신부>, <코코>,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 <알라딘>을 차례로 상영한다.

특히, 8월 17일 저녁에는 록 그룹 퍼플레인의 멤버들과 멜로우키친, 뮤지컬 배우 이하경·박시인이 참여하는 영화음악 콘서트 <시네마뮤직라이브 with NAU&Friends>가 진행되고, 31일 저녁에는 롯데백화점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선발된 키즈오케스트라가 영화 OST와 클래식 음악 명곡을 들려줄 예정이니, 가족 모두가 노들섬을 방문해 한여름 밤의 축제를 즐겨보기를 추천한다.

노들섬은 도심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가족, 연인이 함께할 수 있는 생각지 못한 의외의 섬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한다. 이제 노들섬은 예술이 도심과 자연 사이에 깊게 스며들어 하나가 되기를 기대하는 예술섬이라고 덧붙여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

**8월 노들섬 문화예술 바캉스 일정**

<b>공연</b>	
9일 오후 7~9시	Look at ME '청년마음콘서트'
10일 오후 6~9시	EBS 스페이스 공감 20주년 기념 공연 <We are SPACE RECORD:er>
11일 오후 7~9시	K-팝 떼창데이

<b>전시</b>	
7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이 기록한 한국 대중음악 20년 <20:04-20:24>
8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Look at ME '청년마음전시' <랜덤 다이버시티 2024: 더 레터>

<b>영화 상영</b>	
13일부터 16일까지 오후 7~9시	음악영화주간 ①
17일 오후 7시 30분~9시	시네마뮤직라이브 with NAU & Friends
20·21일 오후 7~9시	음악영화주간 ②
27일부터 31일까지 오후 7~9시	애니메이션 주간
31일 오후 6시	롯데백화점 키즈오케스트라 연주회

\*기상 상황 등 프로그램 진행 사정에 따라 행사 운영이 변경·취소될 수 있습니다

# 뜨거운 계절, 가장 '핫'하게 세종문화회관 싱크 넥스트 24

'시대를 선도하는 아티스트와 블랙박스 극장의 만남'을 모토로 3년차를 맞은 세종문화회관 컨템퍼러리 시즌이 개막했다.

↓ 싱크 넥스트 24 개막을 알린 김요키 새턴발라드 <러브인 새턴> ©세종문화회관

매 여름이면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를 한자리에 불러모아 다양한 예술적 실험과 도전을 펼치는 세종문화회관 컨템퍼러리 시즌 '싱크 넥스트 Sync Next'가 오는 9월 8일까지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에서 이어진다. 올해는 재즈·국악·코미디·극·합창 등 경계 없는 다양한 장르를 무대 위에 소환해 실험성과 동시대성을 내세웠다. 네 편의 공연은 막을 내렸지만, 그보다 매력적인 여섯 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소용돌이에서 뒤섞이는 몸, <없는 시간>**  
배우 김신록이 공연의 콘셉트와 구성·연출을 맡고 시각예술가 손현선이 전시 작품을 무대 위에 올린다.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배우의 몸으로 탐색하는 것'이 곧 연기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연극·영상·무용 등 연기의 세계를 확장해온 창작자 김신록이 그의 동료들과 꾸린 무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연결, 그 만남 사이 틈새에 집중해 작업을 펼쳐나간다. 15세 이상 관람가.

**이토록 깊고 세밀한, <꽤 많은 수의 축수돌기>**  
시적인 가사와 감각적인 음색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싱어송라이터 유아가 동명의 정규 앨범을 토대로 콘서트를 연다. 감미로운 음색과 말솜씨를 지닌 카더가든·오존, 그리고 다방면으로 협업해온 만동이 스페셜 게스트로 무대에 오른다.

**극장 무대에 오른 코미디, <코미디 어셈블>**  
전례 없던 코미디 레이블의 극장 진출!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타코미디의 크리에이터들이 블랙박스에 들어섰다. 시대 흐름에 맞춰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코미디를 선보여온 이들이 만담과 스탠드업 코미디를 준비했다. 19세 이상 관람가.

**'신성'한 소통, 치유와 위안, <군문열림>**  
곳이 지닌 종합예술적 성격에 주목해 다양한 공연 작업을 시도해온 미디어아트 그룹 이스트허그와 강권순 명인, 밴드 64ksana가 의기투합해 '컨템퍼러리 굿판'을 펼친다. 굿 음악이 내재한 연희 요소를 추출해 앰비언트 사운드를 만들고 전통 소리와 결합해 빛과 미디어아트로 표현할 예정.

**빛과 소리로 과거와 현재를 잇다, <광광, 광광>**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원이자 음악그룹 나무의 일원으로 동시대와 소통하는 국악을 추구하는 성시영과 포스트 록 밴드 잠비나이의 이일우, 블랙스텝 멤버이자 타악 연주자 황민왕, 그리고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김지현·윤지현이 창작 집단으로 뭉쳤다. 지난해 초연한 공연을 또 한번 발전시킨 무대.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이 만나면, <ORIGINALLY>**  
일상 속 소음에 무더진 청각을 자극하는 사운드,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색깔의 향연. 우국원 작가가 아티렉터로, 우효원 작곡가가 음악감독으로 참여해 새로운 형식의 예술을 시도한다. 음악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인 목소리에 집중해 아카펠라 사운드로 관객의 오감을 자극할 예정.



# 늦여름 밤마다 축제

## 국립국악원 우면산별밤축제

잠 이루지 못하는 늦여름 밤, 아끼는 사람과 함께 국립국악원에서 소소하고 즐거운 썸표 하나 찍어보는 건 어떨까.

한 손에는 휴대전화, 한 손에는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누울 곳을 보아 다리를 뻗는 것. OTT의 세계를 유유히 헤엄쳐 마침내 꿈나라에 이르는 것. 한숨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면 일용할 양식이 구비돼 있는 것. 일상에서, 사람들 틈에서 벗어나 홀로 고고히 게으름과 무료함을 만끽하는 것.

직장인이 꿈는 최고의 바캉스를 꿈꾸며 여름휴가를 호기롭게 집에서 보냈다면, 멀리 떠나고 싶었지만 여러 사정상 녹록지 않았다면, 늦여름 토요일 저녁 이곳으로 한번 발걸음 해보시라 권하고 싶은 축제가 있다.

이마를 스치는 산바람과 귀 기울이면 들리는 풀벌레 소리, 흐릿하게나마 빛나는 도심의 별빛이 완성하는 축제. 우면산별밤축제에는 곁에 앉은 이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보아도 좋고, 흥겨운 주입세를 더하거나 들썩들썩 어깨춤을 추며 즐거도 눈총받지 않을 공연이 듬뿍 준비돼 있다.

우면산 아래 자리한 국립국악원 야외 공연장 연희마당은 2013년 개관했다. 무대 앞 가운데 넓은 마당을 두고, 둘러앉을 수 있도록 산비탈에 반원형으로 객석을 놓았다. 공연장 이름에 걸맞게 개관 초기에는 <별별연희>라는 제목의 상설 연희 공연을 운영했다. 전국 팔도의 연희패가 농악, 가면극, 줄타기, 창작연희 등 그간 갈고닦은 주 종목을 가지고 연희마당으로 모였다. 삼국 시대부터 기록으로 남아 있는 옛사람들의 연희가 오늘의 관객이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증명하는 무대였다. 2014년부터는 창작국악을 지향하는 신진 국악인의 실험적인 무대, <빛나는 불협화음> 공연도 연희마당에 판을 벌였다. 록·재즈·레게·팝 등 타 장르 음악과 국악의 만남, 그리고 전통을 벗어난 새로운 우리 음악과 관객의 만남이 성사됐다.

2017년에는 시기를 달리해 펼쳐지던 두 개의 공연이 하나의 축제로 거듭났다. 공연장 주변에 푸드트럭이 들어왔고, 전통문화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공연장 안에서 돛자리를 펴고 앉아 공연과 식도락을 함께 즐길 수 있었다. 무대 앞의 마당은 출연진과 관객이 필요에 따라 정답게 나뉘 쓰는 공간이 되었고, 꽉 들어찬 1천여 명의

관객이 객석 뒤쪽 잔디 깔린 비탈면에까지 앉아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다. 더운 날엔 땀범벅이 된 풍물패에게 집에서 챙겨온 얼음물을 건네고, 비 오는 날엔 똑같은 색깔 우비를 입고 삼삼오오 자리를 지키는 관객들의 축제. 첫 번째 우면산별밤축제는 국립국악원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도 남아 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예약이 마감되곤 했던 우면산별밤축제는 2020년 펜데믹으로 인해 관객과 녹화 영상으로 만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입장 인원을 줄이면서 10년 꼬박 이어올 수 있던 것은 여전히 축제를 손꼽아 기다리는 관객 덕분이다. 올해 8월 24일부터 9월 21일까지 예정된 우면산별밤축제도 사전 신청을 받아 관객을 맞이한다. 비와 모기를 막을 우비와 팔찌도 준비했다. 장마와 폭염을 관통해 선선히 불어올 늦여름 저녁 바람을 쐬며 아끼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이곳에서 소소하고 즐거운 썸표 하나 찍고 가시기를 권한다.

한 가지 팁을 더하자면, 도봉산에서 시작해 시계 방향으로 서울을 한 바퀴 도는 서울 둘레길의 열 번째 코스인 우면산을 지나다. 우면산 코스와 따로 또 같이 3킬로미터 남짓 이어지는 무장애 숲길이 올해 초 개통됐다. 나무 데크로 경사를 완만히 하고, 오래도록 산을 지킨 큰 나무 그늘 아래를 골라 길을 냈다. 녹음 우거진 우면산의 가장 순한 길을 따라 걸다보면 길 끝에서 우면산별밤축제가 펼쳐지는 연희마당을 만날 수 있다.



**국악에 관심 있다면?**  
오는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실내악축제가 열린다. 2021년 시작해 매년 호응을 얻으며 이어온 국악 축제. 올해도 거장 황병기의 작품부터 신진 작곡가의 위촉 작품까지 다채로운 국악 실내악 작품이 연주된다. 자연음향을 추구하는 서울돈화문국악당 공간에서 다양한 편성의 국악기가 자아내는 색다른 매력과 섬세한 음악을 즐겨보자.



→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한바탕 펼쳐진 전통연희와 민속놀이 한마당 ©국립국악원



# 예술적으로 슬렁이는 서울 하반기 주목할 아트페어&전시

8월을 시작으로 날마다 이어지는 화려한 라인업에 미술 애호가라면 준비할 것은 무엇? 부지런한 준비와 튼튼한 체력!

여름의 끝자락, 가을을 맞이하는 시기가 오면 한국의 아트씬scene은 부쩍 분주해진다. 아트페어, 비엔날레, 주요 전시가 집중적으로 펼쳐지는 아트위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미술관은 대형 전시를 선보이고,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와 국제적 명성의 비엔날레가 더해지며 국내외 예술 애호가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시기다. 그중 최근 많은 관심을 받는 아트페어를 중심으로 아트위크의 주요 이벤트와 가을까지 이어지는 아트페어를 소개하니 올해도 서울의 아트 바이브에 빠져보자.

## 오직 서울에서 즐기는 아트페어 릴레이

올 하반기 첫 아트페어는 더프리뷰 성수다. 미술시장 '미리보기preview'라는 콘셉트로 초보 컬렉터를 공략해온 '더프리뷰 성수 with 신한카드'가 올해 3회를 맞아, 기존 4월에서 8월 말로 행사 기간을 옮겨 하반기 미술 축제의 스타트를 끊는다. 네 번째 더프리뷰 성수는 성수동 에스팩토리아에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된다. 더프리뷰 성수는 신진 갤러리, 신진 작가, MZ 컬렉터가 만나는 장으로, 새로운 감각의 작품을 발견하기에 최적의 아트페어다. 카드사가 함께하는 아트페어로 무이자 할부, 캐시백 등 결제 혜택이 많아 합리적인 가격의 작품을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으니 카드를 챙겨 방문하자. 다양한 식음료와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팝업 스토어로 참여해 여름의 열기가 남아 있는 8월 말, 젊고 '힙'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프리즈 아트페어의 서울 상륙 소식은 독자들도 들어봤을 것이다. 영국 현대미술 잡지인 '프리즈'가 2003년 런던에서 시작한 프리즈 아트페어 Frieze Art Fair는 젊은 작가와 실험성을 바탕으로 신선하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작품을 선보이며 차별화를 추구해왔다. 런던에 이어 뉴욕·LA를 넘어 아시아 최초로 프리즈 서울을 2022년부터 개최, 한국 미술시장의 국제화를 선도하고 있다. 프리즈와 키아프 KIF는 매해 9월 코엑스에서 동시 개막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아트페어를 펼친다. 올해 프리즈 서울에는 전 세계 30개국에서 110여 개 갤러리가 참여해 9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C·D홀에서 다채로운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인다.

100개가 넘는 부스 속에서 어디로 향할지 혼란스럽다면, 우선 지도부터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다. 프리즈 서울에는 가고시안 Gagosian, 하우스저엔워스 Hauser & Wirth, 리슨 Lisson, 데이비드 즈위너 David Zwirner 등 국제적으로 저명한 갤러리가 참여해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해외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니 방문을 원하는 갤러리의 위치를 체크해 동선을 짜는 것이 좋다. 아시아 기반의 갤러리가 준비한 작가의 개인전인 포커스 아시아 Focus Asia, 시대를 초월한 예술 작품, 컬렉터블한 오브제부터 거장들의 작품, 20세기 후반의 주요 걸작을 제시하는 프리즈 마스터스 Frieze Masters 섹션은 필수 코스이니 지도에 가장 먼저 표시하고 시작하자. 또한 프리즈는 이벤트를 페어장 밖으로 확장해 필름·뮤직·라이브·퍼포먼스 등 여러 관객층이 즐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입장권이 없어도 무료로 서울 곳곳을 누비며 프리즈 위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한국 최초, 최대의 국제 아트페어인 키아프도 프리즈와 함께 국내외 애호가를 맞이한다. 9월 4일부터 8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키아프에는 21개국의 주요 갤러리 207곳이 참여한다. 키아프는 국내 정상급 갤러리 130여 곳의 참여로 로컬 아트씬을 보다 심도 있게 살필 수 있다는 것이 관전 포인트다. 키아프에서도 지도는 필수! 올해 키아프는 코엑스 1층의 A·B홀과 그랜드볼룸, 그리고 2층 더 플라즈까지 확대해 사용하는데, 국내외 현대미술 작품이 가득한 갤러리 섹션은 A·B홀에, 모던 마스터 작품은 그랜드볼룸에서 선보인다. 작가별 깊이 있는 탐구가 가능한 개인전으로 구성된 솔로 섹션, 실험적인 신진 작가와 갤러리를 발견할 수 있는 플러스 섹션도 빠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공동으로 개최하는 두 페어가 함께 준비한 프로그램도 있다. 글로벌 미술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 다이나믹한 토론을 펼치는 토크 프로그램과 관람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나이트 프로그램이다. 서울의 여러 미술관과 갤러리 밀집 지역에서 운영하는 한남(9월 3일)·삼청(4일)·청담(5일)의 나이트 프로그램에 더해 올해는 '울지로 나이트'를 새롭게 선보이며 서울의 '힙'을 제대로 보여줄

→ 2023 디파인 서울 박흥구 작가 주재관 ©DEFINE SEOUL  
→ 아트페어 한편에 마련된 퍼포먼스 라운지 ©더프리뷰 성수

예정이다. 퇴근 후 갤러리와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샵페인·막걸리 한 잔과 함께 다양한 예술 관계자들과 대화하며 깊어가는 서울의 밤을 즐길 수 있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 가을을 기다렸다, 주요 미술관을 수놓는 대형 전시

아트페어 외에도 놓칠 수 없는 전시와 이벤트가 가득하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아시아 여성 미술을 초국가적·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전시《말하는 몸: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9월 3일부터 2025년 3월 3일까지 예정)을 통해 여성주의 미술의 다층적 면모를 선보인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소문 본관과 북서울·남서울미술관, 평창동의 미술아카이브 네 곳을 연결해 소장품 주제 기획전 'SeMA 옴니버스'를 7월 31일부터 선보이며 서울 전역에서 시민을 맞이할 계획이다. 용산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은 9월 3일부터 아티스트 듀오 엘름그린과 드라그셋(Elmgreen & Dragset)의 개인전《SPACES》, 1층 APMA 캐비닛에서는 세계적인 갤러리 가고시안의 한국 첫 전시를 함께 선보인다. 팝아트의 전략을 바탕으로 인간의 욕망을 표현해온 데릭 애덤스(Derrick Adams)의 한국 첫 개인전으로, 작가의 새로운 회화 시리즈가 소개될 예정이다.

한남동 리움미술관은 아니카 이(Anicka Yi)의 개인전과 젊고 역량 있는 작가들을 주목하는 《아트스펙트럼 2024》를 선보이며, 삼청동 아트선재센터에서는 설치미술 작가 서도호의 개인전이 열린다. 청담동 송은에서는 경매회사 크리스티의 소유주이자 프랑스 명품 브랜드 케링(Kering) 그룹의 창업주인 프랑수아 피노(Francois Pinault)의 컬렉션을 선보이는 피노 컬렉션(Pinault Collection) 전시를 준비했다. 세계적인 부호이자 컬렉터가 주목한 작품을 살펴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이다. 국제 기획전부터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국내외 현대미술가의 개인전까지 완성도 높은 전시가 동시에 개최되니 권역별 지도를 그려 부지런히 즐겨야겠다.



← 아니카이, 《메타스포어》, 피렐리 항가비코카 밀라노 전시 전경, 2022, 작가 및 밀라노 피렐리 항가비코카 밀라노 제공, 사진 아고스티노 오시오

### 성수동에서 만나는 신홍강자

가을이 무르익으면 다시 성수동으로 향하자. 디자인과 파인 아트가 만난 신개념 아트페어인 '디파인 서울'이 에스팩토리와 성수동 일대에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된다. 디파인 서울은 디자인(Design)과 파인아트(Fine Art)의 단어 앞글자를 연결해 '정의하다(define)'라는 의미를 담았으며, 예술과 디자인을 대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출발한 페어다. 전시장이 성수동 일대에 흩어져 있어, 오래된 공장과 예술 공간, 팝업 스토어, 디자인 부티크 등이 어우러진 특유의 분위기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디자인 가구, 리빙 공간에 어울리는 작품,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 등을 구매하는 즐거움과 함께 성수동 골목의 미식 성지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서울의 늦여름과 가을은 '아트'로 술렁일 예정이다. 길어야 5일 내외로 개최되는 아트페어는 작품 유통을 위한 주요 플랫폼인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작품이 모이는 만큼 미술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에도 최적의 플랫폼이다. 작품이 모이는 곳에 컬렉터·작가·기획자·애호가들도 모이니 아트 월드를 한눈에 살펴보기에도 딱! 좋은 기회다. 그러니 지금부터 서울아트투어를 즐기기 위한 체력을 준비하자.

# 우리가 함께한 여름날

## 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 국제음악제

설렘을 안고 들어선 객석에서 어른은 클래식 음악에 심취하고, 어린이는 무대를 바라보며 상상의 세계로 모험을 떠난다.

우면산 아래 자리 잡은 예술의전당의 여름은 그 자체로 푸른 내음이 가득하다. 게다가 클래식 음악 전문 공연장부터 전시실까지, 넓은 공간을 보유한 것이 이 공연장의 가장 큰 장점. 여름을 맞이해 다양한 연령의 관객을 위한 축제를 마련한 만큼, 예술과 함께 여름의 하루를 보내기에 제격인 장소다.

### 예술적인 방향을 위한,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객을 위한 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은 2017년 시작돼 매년 7월과 8월에 진행된다. 36개월 이상 입장 가능하니 통상 7세로 설정되는 공연장 입장 가능 연령에 가로막혀 평소 공연을 보기 어려웠던 아이들도, 극장의 문턱을 넘어볼 소중한 기회다.

7월 12일 시작한 2024년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은 8월 들어 연극 <우산도둑>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인형극 <산초와 돈키호테> (8월 9일부터 18일까지)를 선보인다. 두 공연 모두 극의 내용은 물론, 공연 전달 방식 자체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우산도둑>은 2021년 페스티벌에서 호평받은 극으로, 재치 있는 배우들의 대사가 생동감을 더한다. 무엇보다 관객 참여형 공연을 지향하고 있어, 공연 전 일찍 로비에 도착하면 배우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다. 공연장을 찾는 일에서부터 예술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적극 활용해보자.

<산초와 돈키호테>는 원작의 메시지를 각색했다. 돈키호테와 모험을 떠나는 산초는 9살 어린이다. 인형과 팝업북, 그림자 등을 활용해 지루하지 않은 연출을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신비한 서점을 배경으로, '내일의 돈키호테가 될 산초'의 이야기가 살아 움직이는 책이 돼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돌풍, 국제음악제

2021년부터 '예술의전당 여름음악축제'로 불린 축제가 올해 새로운 이름을 입었다. 이름하여 '예술의전당 국제음악제'. 신진 음악가를 소개하는 무대에 주력해온 축제의

기존 정체성에 국제적 명성을 더할 화려한 해외 음악가 라인업이 꾸러졌다.

8월 6일부터 11일까지 이스라엘 심포니·텔아비브 이스라엘 오페라단의 음악감독인 단 에팅거Dan Ettinger가 SAC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포디엄에 올라 8월 6일과 11일 축제 개·폐막 공연의 음악적 완성도를 이끈다. 최근 도이치 그라모폰 아티스트로 계약해, 파격적 음반 기획으로 화제를 모은 피아니스트 율리우스 아살Julius Asa이 이 음악제에서 한국 첫 무대를 가진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수려한 연주로 화제성을 자랑하는 네덜란드의 듀오 피아니스트 루카스 유센과 아르투르 유센 형제Lucas & Arthur Jussen의 공연도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 시대를 대표한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장 연주자, 피아니스트 이머진 쿠퍼Imogen Cooper와 첼리스트 피터르 비스펠베이Pieter Wispelwey의 출연은 축제의 국제적 명성을 입증할 라인업이다. 이머진 쿠퍼가 선보일 베토벤의 후기 피아노 소나타 30·31·32번, 피터르 비스펠베이가 연주할 바흐의 첼로 무반주 모음곡 전곡은 여름의 한복판에서 클래식 음악의 깊이에 흠뻑 빠져볼 기회다.

또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주역인 테너 백석중, 리옹 실내악 콩쿠르 한국인 첫 우승에 빛나는 아레테 와르텃, 쾨넬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 바리톤 김태한 등 한국의 자랑스러운 연주자들이 음악제에 참여해 그 풍성함을 더한다. 이 외에도 공모를 거쳐 23 대 1의 경쟁을 통과한 연주자들이 관객을 만날 예정. 바이올리니스트 위재원, 아벨 와르텃을 비롯해 목관 5중주단 트로이 앙상블, 호른 연주자 9명이 모인 코리아 혼 사운드 등 다양한 악기의 향연이 펼쳐진다.

→ 2023 예술의전당 여름음악축제 <스페셜 스테이지 with 백건우>는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젊은 연주자들이 호흡을 맞추는 무대로 화제를 모았다 © 예술의전당



### 예술의전당의 여름, 이렇게 하면 두 배로 즐길 수 있다!

예술의전당 세계음악분수는 우면산과 어우러지는 풍경을 가진 주요 힐링 포인트. 음악당과 오페라하우스 사이에 위치, 오키는 관객과 인근 주민들의 쉼터가 되기도 한다. 평일에는 정오와 오후 6시에 한 시간씩,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음악과 함께 시원하게 떨어지는 분수의 물줄기 아래는 언제나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는 1101 어린이라운지도 빼놓을 수 없다. 1세부터 즐길 예술이 10세까지 이어진다는 감성을 담았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유료로 운영하며, 부모 공연 관람객을 위해 오후 10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전 전화로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어린 자녀들과 동반 입장할 수 없어 공연 관람에 어려움을 겪던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유용한 공간이다.

# 블랙박스와 일렉트로닉의 만남

## 퀴드 여름페스타

지난해 처음 만난  
퀴드여름페스타, 올해 더  
실험적이고 다양한 무대로  
다시 찾아왔다.

독창적인 라인업으로 지난해 첫선을 보인  
퀴드여름페스타가 올해 새로운 라인업을  
갖추고 돌아왔다. 나홀간 네 팀과 마련한  
무대를 통해 동시대 전자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 올해는 공연만 아니라  
마니아 관객을 위한 패키지 티켓을 준비하고,  
음악평론가·아티스트의 강연, 사운드를  
온몸으로 느껴보는 요가·움직임 등 부대 행사가  
마련된다. 또 공연 당일 기대감을 고조시킬 타투  
프린팅, 포토존, 전자악기 체험 부스 등 즐길  
거리가 준비된다. (부대 프로그램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관람 전 누리집을 확인할 것!)



### 8월 22일 목요일 | 키라라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할 전자음악가  
키라라KIRARA는 '이쁘고 강한 음악'을  
모토로 2014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자신의  
음악을 둘러싼 수식과 규정을 벗어던지고,  
차갑고 강한 비트와 여리고 섬세한 멜로디를  
조합한 음악으로 사랑받으며 제14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댄스&일렉트로닉  
음반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유의 무대  
매너와 음악으로 프리마베라 프로Primavera Pro·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SW 등 세계 무대에서  
초청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연 40회 이상  
공연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 8월 24일 토요일 | 노이스(윤상×이준오)

노이스Nobys는 가수이자 작곡가·프로듀서  
윤상, 전자음악과 영화음악으로 활동해온  
캐스커(이준오)가 프로젝트로 결성한 팀.  
소리의 공간감, 질감, 색깔, 온도 등 음악적으로  
다양한 실험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2022년  
첫 번째 싱글 '#3', 2023년 정규 『ethic』을  
발매했고, 올여름 퀴드에서 처음으로 라이브  
공연을 연다. 소리, 멜로디, 코드 혹은 두 사람의  
취향으로부터 출발해 매력적인 사운드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이들의 음악을 생생하게  
만날 기회가 될 것이다.



### 8월 23일 금요일 | 글렌체크

김준원(보컬·기타), 강혁준(신시사이저·  
베이스), 제이보(기타·신시사이저)로 구성된  
일렉트로니카 밴드 글렌체크는 2011년 EP  
『Disco Elevator』로 처음 이름을 알렸다.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음악과 스타일로 사랑받으며,  
글렌체크만의 청량한 신스팝 사운드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댄스&일렉트로닉 음반 부문을 두 차례나  
수상했고, 국내외 뮤직 페스티벌에서 꾸준히  
관객과 만나고 있다. 2022년 정규 앨범  
『Bleach』를 발매했고, 최근 T1 20주년을 기념한  
협업 싱글을 내기도 했다.



### 8월 25일 일요일 | 해파리

최혜원(기악)과 박민희(보컬)가 공동  
프로듀싱하는 일렉트로닉 듀오 해파리는  
건반과 타악기를 중심으로 한악기, 가상악기,  
목소리를 이용해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종묘제례악·가곡 등 전통음악을  
앰비언트 테크노 문법으로 재해석해  
신선한 충격을 가하기도 했다. 국악인이자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이기도 한  
박민희와 전통 타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운드를 다루는 최혜원의 만남은  
전통이라는 규범을 넘어선 무궁무진한  
음악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 ASSOCIATED

- 예술가의 진심
- 최수열이 만들어가는 오늘의 현대음악, 내일의 고전
- 예술인 아카이브
- 김은한
- 배인숙
- 페이퍼로그
- 축제기획1팀 이유진
- 인사이드
- 리스트레이지 서울
- 발달장애 미술가 육성사업 '우리시각'
-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 서울시민예술학교 마스터 과정
- 트렌드
- 세계 유일의 극장이 된 채석장

최수열이  
만들어가는

오늘의  
현대음악,

내일의  
고전





어느 한여름의 밤 9시,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 수많은 관객이 모여들었다. 헬무트 라헨만 Helmut Lachenmann과 진은숙의 작품을 연주하는 ‘현대음악 공연’이었지만, 객석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감돌았다. 해설과 공연이 시작된 후로 객석에선 때론 웃음이 터져 나오다가도, 엄청난 몰입이 느껴졌다. 모차르트 호른 협주곡을 듣고 지휘자의 길을 걷게 됐지만 고전과 낭만 레퍼토리에 머물지 않고 가지각색 매력을 지닌 현대음악을 선보여온 최수열이 공연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이다.

“살아남았습니다”라는 말로 7월 4일 <최수열의 밤 9시 즈음> 공연을 시작했어요. 올해로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한 이 공연은 흥미로운 동시대 음악을 들려주는 동시에, 최수열이라는 음악가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음악을 전하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지휘자로서, 예술감독으로서 많은 공연을 해왔지만, 최수열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이 무대는 어려모로 좀 더 각별할 것 같습니다. 의도를 잘 파악해주셨네요. 악단의 감동으로 구성할 프로그램과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공연의 프로그램은 제게 무척 달라요. 저는 사실 제 이름을 크게 내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악단 공연할 때도 제 이름은 늘 작게 한구석에 넣고 그래요. 악단이 돋보여야 하니까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롯데콘서트홀에서 제 이름을 걸고 기획한 시리즈가 하나 있었어요. <최수열의 고전두시>라고 오후 2시에 하이든을 연주하는 기획이었는데, 일 년 정도 하다가 접었죠.

↑ 2023년 시작해 올해도 이어지는 <최수열의 밤 9시 즈음>은 늦은 밤, 동시대 작곡가의 작품을 실연하며 해설을 덧붙이는 신선한 무대를 보여준다 ©예술의전당

수요일 오후 2시라는 시간의 제약도 있었고, 극장 크기에 비해 그 시간대에 관객을 많이 모으기도 힘들었고요. 그러다 예술의전당에서 밤 9시 공연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이름이 들어가게 되니 책임감도 컸고, 또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칼을 갈면서 했죠. 그래서인지 올해 무사히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 선곡부터 순서까지 백번도 더 고쳤어요. 지금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심장처럼 중요한 일이에요.

오랫동안 함께해온 TIMF 앙상블과의 합도 너무 좋았어요. 특히 앙상블에 오래 있던 연주자분들을 오랜만에 한자리에서 만나 반가웠습니다. TIMF 앙상블과 저는 인연도 워낙 돈독하지만, 특히 작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진은숙 선생님과 프레스앙 페스티벌 Festival Présences에서 같이 공연도 했고요. 2년 전에는 소프라노 황수미 선생님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여섯 작곡가의 작품들 Korean Composers』 앨범도 녹음했죠. 그때와 거의 같은 멤버예요. 특히 이번 공연의 마지막 곡인 진은숙의 ‘구갈론’을 연주할 때 단원들을 보면 한분 한분이 ‘전사’처럼 느껴져요.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게임에서 대련할 때, 캐릭터마다 각자의 필살기를

갖고 있잖아요. 단원 한명 한명이 전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지휘자도 마찬가지로 같아요. 프로그램 노트에 “가상의 민속음악”이라는 표현이 있기도 했지만, 사실 지휘자는 그 가상성을 몸에 외닿는 묘사로 바꿔서 단원들을 설득해야 하잖아요. ‘구갈론’에는 전체적으로 유랑 극단의 이미지가 감돌지만 어느 한쪽에서는 페데리코 펠리니의 영화 속 유랑 극단, 다른 한쪽에서는 동춘서커스의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았어요. 세계관이 뒤섞이며 멋지게 일그러지는 그런 감각들이 생생하게 외닿았죠. 진은숙 선생님께서 곡을 너무 잘 써주셨죠. 근데 또 곡이 연주하기에도 정말 어렵거든요. 다행히 이 곡은 파리 무대에서 같은 연주자들과

← 올해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수석객원지휘자로 위촉된 최수열은 지난 7월 3일 손일훈이 작곡한 음악극 <숨>을 첫 무대로 올렸다 ©세종문화회관

한번 연주를 해 봤고, 그때 경험한 감각이 저에게도, 연주자들에게도 남아 있었어요. 현지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진은숙 선생님도 흡족해하셨고요. 그때 이 곡을 서울이 아닌 파리에서 먼저 보여주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곡을 밤 9시 공연에서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어떤 곡이랑 섞을까, 이런 고민을 시작했죠.

긴 시간 현대음악을 꾸준히 다뤄왔지만, 매년 같은 마음이진 않을 것 같아요. 10년 전쯤 한 인터뷰에서 “현대음악이 행복을 줄 것 같지는 않지만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살짝 거리를 두고 말쑥한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또렷한 어조로 “오늘의 현대음악이 미래의 고전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셨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어떠세요?

그때가 되게 상처받았을 때예요. 10년 전쯤 앙상블 모데른에서 어떤 친구와 둘이, 그야말로 군중 속 고독을 느끼면서 ‘너는 이 음악만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도망쳐 나왔죠. 그땐 제가 좋든 싫든 해야 한다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명감은 그대로인데, 지금은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났달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현대음악을 대하고 있고, 제 기준에서는 관객들에게 ‘이거는 분명 흥미를 느끼실 거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음악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건 계속 연주되어도 좋지 않을까요’,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최근 서울시국악관현악단과 손일훈 작곡가의 음악극 <숨>도 연주했어요. 국악계와 꽤 오래전부터 협업하셨죠. 초창기에는 CMEK(한국현대음악앙상블)처럼 조금 더 현대음악의 맥락이 강한 단체와 함께했다면 이후엔 국립국악관현악단과도 자주 만났고, 이제는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수석객원지휘자를 맡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국악관현악 지휘를 하시는지요?

제가 전업 국악 지휘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악관현악을 지휘하는 게 큰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국악계’에 들어와서 지휘를 시작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원일 전 예술감독님의 제안으로 협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 제게는 좀 다른 의미였어요. 그래서 국립국악관현악단과 몇 차례 함께한 이후 다른 악단에서도 종종 연락을 주셨는데, 거기엔 응하지 못했죠. 그러다 이번에 서울시국악관현악단에서 온 제안에 마음이 움직인 건, 단원분들이 저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건 또 제게 특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두 차례 지휘하게 됐어요. 국립국악관현악단에 처음 갔을 땐 제가 함께하던 오케스트라와는 너무 달라서 재밌었거든요. 정도 많고, 일도 재미있게 하고. 근데 서울시국악관현악단에 와보니 또 달라서 재밌어요. 여긴 굉장히 이카데믹한 분위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뭔가를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웃음)

**국악관현악에는 전통에 단단히 뿌리내린 무수히 많은 장단이 나오는 곡도 있고, 조금 더 현대적인 성향이 강한 곡도 있죠. 레퍼토리가 빠르게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흥미로운 작업이라면 국악관현악 지휘도 계속할 예정인 거죠?**

저는 국악계에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겠습니다', '가르쳐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너무나 친절하게 알려주시거든요. 제가 이쪽을 전업으로 하려고 했으면 그건 되게 뻔뻔한 건데, 저는 국악관현악을 현대음악의 한 카테고리로 생각해서 온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해요. 국악관현악을 이루는 본질적인 어떤 것들은 제가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그걸 계속하며 살아오신 분들에 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담스럽지 않고, 편한 거예요. 배우면서 할 수 있으니까요.

**2023년을 끝으로 6년간 맡아온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 활동이 마무리됐습니다. 부산에서 긴 호흡으로 진행해온 것 중 하나가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과 라벨 관현악곡 전곡 연주였어요. 저는 동시대 음악을 자세히 바라보는 사람들은 앞선 클래식 음악의 역사를 좀 더 능동적으로 재구성해서 받아들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나만의 역사를 만드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전곡 연주 기획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먼저 '부산'이라는 지역이 어떤 정체성을 지녔는가, 이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게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화끈한 성격에 자신감이 넘치고, 굉장히 개방적인 데다 또 멋부리는 것도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오케스트라에서는 뭘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낸 게 슈트라우스였어요. 실제로 부산시향에서 많이 연주한 곡이기도 했죠. 당대에 슈트라우스는 최고로 인기 있는 작곡가였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고, 맛을 아는 사람이었죠. 슈트라우스는 뭔가를 화려하게 보여준 다음, 마지막에 연기 속으로 딱 사라져요. 화려한 상태에서 끝내는 건 슈트라우스가 생각하기에 멋진 게 아니라고 본 것 같아요. 진정한 영웅은 출연히 사라져야 한다는 것처럼요. 근데 연주할 때는 힘들어요. 박수 타이밍도 애매하고, 빠듯하면 너무 티가 나세요. (웃음) 슈트라우스는 제가 부산 오기 전까지 집착한 작곡가이기도 하고, 또 워낙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악상을 잘 녹여내는 작곡가거든요. 악기에 대한 기술도 워낙 좋고요. 제가 음악을 시작한 계기가 노래가 아닌, 악기 소리에 빠져서인 만큼 악기를 통해서만 전해지는 어떤 로망이 있는데, 그런 기술을 잘 쓰는 작곡가들이 있어요. 라벨도 마찬가지죠.

**둘 다 멋쟁이에, 관현악법의 대가에, 전곡 연주는 잘 이뤄지지 않던 작곡가들이네요. 맞아요. 전곡 연주가 되는 작곡가도 몇 없지만, 이 둘은 전곡 연주에서도 좀 밀려난 작곡가들이 거죠. 슈트라우스 교향시는 전곡 연주의 가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라벨도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전곡 연주가 이뤄지는 작곡가들이 있으니 나는 또 다른 걸 해보자고 생각하다가, 마침 조건이 맞아떨어졌죠. 제가 연주할 때마다 어떤 곡을 몇 번 지휘했는지 세지 않는데, 유일하게 슈트라우스와 라벨만 세요. 이번이 열한 번째 '돈 후안'이구나. 이렇게요.**

**검증된 고전 중의 고전만 아니라 더 넓은 레퍼토리의 가능성을 살핀다는 점이 현대음악을 다루는 마음과 연결된 것 같아요. 어떤 동료 지휘자는 그래요. '형 그거 왜 안 해요? 그 곡 너무 좋은데?'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해요.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번 더 해서 그 퀄리티를 높일래.' 오페라 할 시간에 현대음악 재밌는 거 하나 더 발굴해서 소개하고 싶은 거죠. 제가 해야만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이 셋이 있잖아요. 저는 계속**

그걸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딱 합쳐지는 게 저한테는 현대음악이에요.

**현대음악이든 국악관현악이든 모두 '동시대의 음악'입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지금 시대의 음악적 특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템포에 대한 감각, 음향이나 움직임에 대한 감각 등 여러 가지 중에서도 지휘자님이 생각하는 특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만들어진 음악들은 현장에서 들을 때의 입체감이 예전 곡들과 굉장히 달라요. 예컨대 진은숙의 '구갈론'을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연주하는 걸 눈앞에서 보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주장하는 건, 녹음을 남기는 것보다는 계속 무대에서 연주하는 걸 사람들이 현장에서 보게 해야 작품의 생명력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걸 '실연으로 기록'한다고도 표현했죠. 저에게도 가끔 클래식 음악에 미래가 있느냐는 질문이 와요. 저는 디지털에 의지하는 클래식 음악 시장은 별로 희망적이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고, 오히려 (디지털에) 굉장히 불친절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욕쟁이 할머니의 맛집 같은 거죠. 에어컨도 안 나오고, 줄도 서야 하고, 욕도 먹지만, 그래도 여기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 다른 악단에 간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시도해보고 싶어요. 대신 관객들이 찾아오게 하려면 내실을 굉장히 잘 다져야겠죠.

**마지막으로, 음악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가장 크게 바꿔놓은 한 곡을 꼽아본다면요.**

음악을 업으로 삼게 해준 곡은 여러 번 말한, 모차르트 호른 협주곡이거든요. 이 곡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저한테 중요한 모티프를 준 음악가는 김동률이예요. 중고등학교때부터 지금까지도 저의 음악적인 감수성을 지배하는 음악가죠. 곡 하나하나의 작품성도, 수록 곡의 분위기와 잘 맞는 앨범 콘셉트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되게 거창하지만, 제게는 베토벤만큼이나 중요한 음악가거든요. 김동률의 음악에는 굉장히 대중적인 곡이 있고, 실험적인 곡도 있고,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곡도 있고, 또 유언 같은 곡이 있어요. 마지막 메시지 같은 곡인데, 저는 그 유언 같은 곡들을 되게 좋아해요. 어느 한 곡을 꼽기 어렵지만, 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엔 항상 김동률의 음악이 있었어요.

# 김은한

연극

@mammothmermaid

웹진 연극in 희곡운영단

(2020~2021년)

서울연극센터 공간개방축제 <연극-

하기와 보기>(2023~2024년)



“저는 1인 극장 ‘매머드머메이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프린지페스티벌에서 신작을 무대에 올립니다. 연말연시에는 ‘주주총회’라는 이름으로 팬을 위한 특별한 공연을 하고요. 최근에는 관객의 집에서 공연하는 일이 늘었어요. 코미디나 공포 연극을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기분이 들게 하는 연극을 추구합니다.”

“대학 시절 연극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했어요. 홍대에서 아르바이트하다가 자유 참가 축제인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오네스코Eugène Ionesco를 좋아했는데, 동아리에서는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죽음을 연습하는 마음’을 표방하며 2015년 축제에서 이오네스코의 <왕은 죽어가다>를 1인 형태로 바꿔 올렸습니다. 차츰 관심을 가져주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생겨서 조금 더 연극을 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조금 더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는 계속하고 싶어요.”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 만들었는데 관객도 좋아해줄 때, 무척 신나요. ‘이런 게 예술의 효능일까?’ 생각하게 되고요. 낯선 재미를 발견하고 그걸 다듬어갈 때 깊이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런 순간도 짜릿합니다.”

“극단 ‘지금아카이브’와 4년간 함께한 <코미디 캠프> 시리즈를 대표 작품으로 꼽을 것 같아요. 최근 극장이나 길에서 알아봐주시는 관객 대부분이 <코미디 캠프>를 봤다고 하거든요. 김진아 연출이 ‘저 사람들의 코미디가 보고 싶다’며 저와 안담·배선희·신강수 배우를 불러주셨어요. 각자가 매년 주제에 맞춰 실험적인 코미디를 만드는 기획입니다. 저는 4년간 카프카의 단편이나 보르헤스, 일본의 전통 코미디 라쿠고落語, 짧은 형식의 시 하이쿠, 블랙 메탈을 소재로 25분 분량의 콩트를 만들었어요. 조만간 지난 공연 영상이 공개된다고 하니 꼭 살펴보세요. 더불어 1인극으로 제목이 시가 되고 연극이 주석이 되는 공연도 만들고 있습니다. <멀리서 응원하고 극장을 찾지 않는 사람들>, <침묵하는 것만이 그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게 분하다>라는 작품이에요. 이때부터는 음악가의 ‘세트리스트’ 혹은 ‘모듈’ 형태를 의식하면서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공연 테마에 맞춰 여러 가지 짧은 연극을 만들고 그걸 연결하는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어요.”

“요즘은 짜릿하게 바쁜 시기인데요. 프리랜서에게 일이 몰리는 건 왕왕 있는 일이지 않아요. 저는 제작이 빠른 편이고 몸도 하나기 때문에, 일정이 완전히 겹치지 않으면 가능한 한 들어온 일은 다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7월 말부터 8월 한 달 동안 여덟 작품 정도 시연하게 됐어요. 서울프린지페스티벌에서 <구립극단원>이라는 SF 신작 연극을 선보이는데요. 혼자 연극하는 이상한 사람의 감각을 관객에게 더욱 전하기 위해 궁리하고 있어요. 다른 낭독 공연도 준비하고 있는데, 극작가분들의 신작 희곡을 공연하는 거라 두렵고 설레는 맘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대본으로 공연하는 건 5년 만이에요.”



← 서울프린지페스티벌 공연 모습, 사진 제공 서울프린지페스티벌·우주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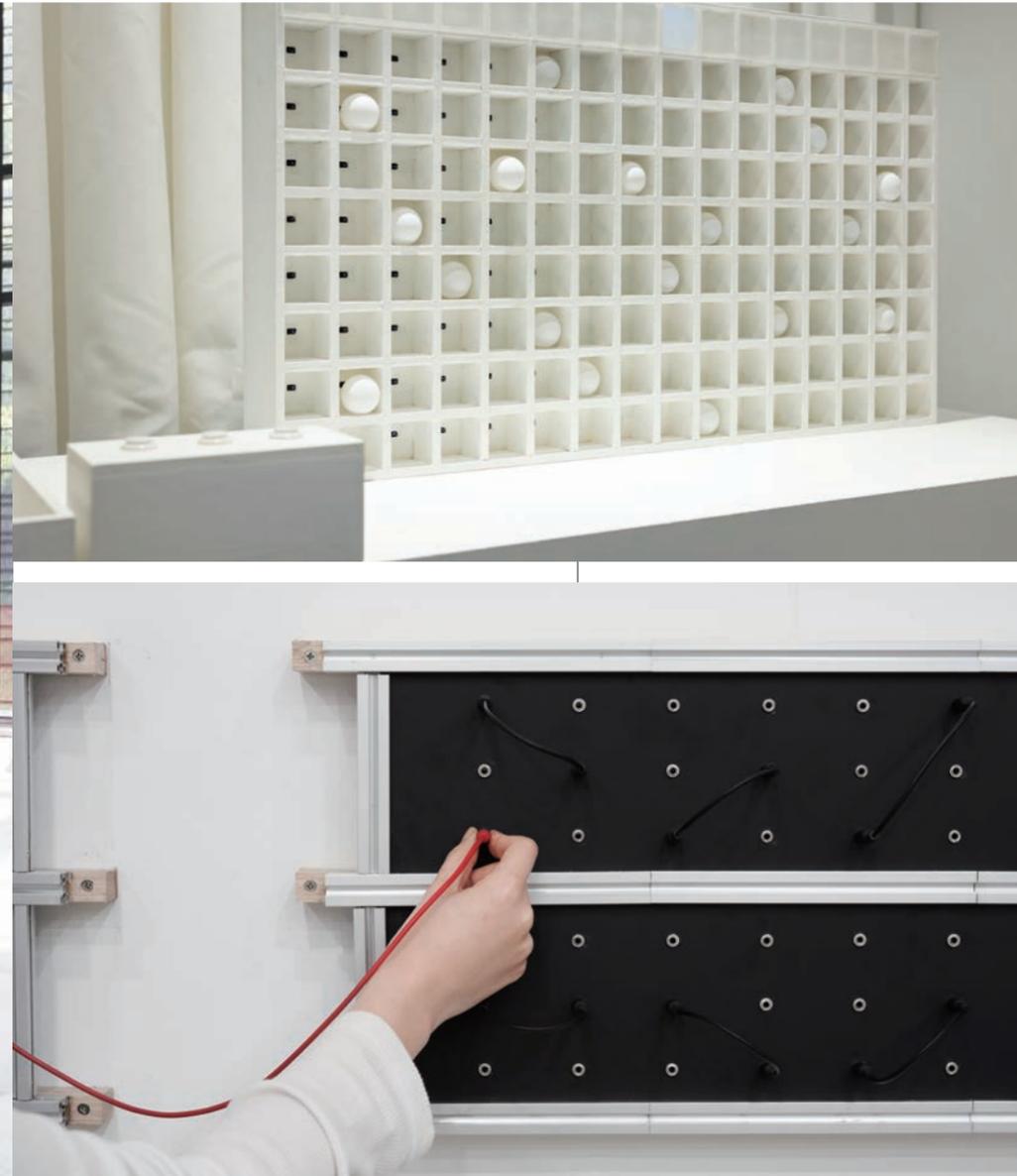
“생활 전반과 취미에서 영감을 받아요. 요즘 극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강은 알아야 하니까 연극도 연간 80~100편 정도는 보려고 하고요. 일본의 공연예술에 관심이 많아서 온라인 상영 같은 행사를 꼼꼼히 찾아봅니다. 또 미스터리 소설도 좋아해요. 독자를 놀라게 하는 방식, 결말에 다가갈수록 흥미로워지는 구성에서 배울 점이 많아요. 음악 공연장에서 춤을 출 때도 좋은 생각이 정말 많이 나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노는 일정은 취소하지 않으려고 해요. 식은땀을 흘리긴 하지만요.”

“한국에서 발간되지는 않았지만, 마야 유타카麻耶雄高의 『여름과 겨울의 소나타』는 미스터리 소설에 큐비즘이라는 미술 사조가 접목돼 아름답게 작동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추리를 하지만 애매하게 알려주는 태도도 연극가 제 연극에 반영하고 싶어요. 『던전밥』, 『삼체』도 올해의 인상적인 독서예요. 가야 할 곳을 향해 처절하게 최선을 다하는 인물에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념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세상은 가혹하게 흐르지만, 그렇기에 지금

여기에서 있는 힘껏 해나가야 한다고 느꼈어요. 블랙게이즈Blackgaze (블랙 메탈과 슈게이즈Shoegaze가 결합된 장르) 밴드 아스노조케이明日の紋景, 데프헤븐Deathheaven의 내한 공연도 좋았습니다. 난폭과 서정을 조화롭게 연극에 녹여내는 게 제 꿈인데요. 이미 환상적으로 멋지게 해나가고 있는 창작자를 보면서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최근 인상 깊은 연극은 엔티 라이브NT Live <플리백Feabag>이었어요. 1인 창작자다 보니 1인극을 자주 찾아보는데요.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나 연기가 무척 인상적이더라고요. 좋은 걸 보면 잠시 주눅이 들어 있다가, 그래도 내 나름 해 봐야지 마음먹게 됩니다.”

“미니멀리즘 롤플레이 게임에 관심이 있어요. A4 용지, 엽서나 명함, 심지어는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즐길 수 있는 놀이예요. 관객의 머릿속에 극장을 세우는 게 제 일이지요. 이런 수법도 연극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찾아보고 있어요. 또 ‘신케이카사네가후치真累累ヶ淵’라는 긴 일본 괴담이 있는데, 한국 정서에 맞게 번안 가능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 배인숙

음악/사운드·설치  
b.1975  
@bae.insook  
2024 서울시민예술학교  
여름 시즌 '어디서 무슨 소리'

“평소에는 전업 작가로 작업하며 지내지만, 가끔 예술교육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서울시민예술학교 양천에서 어린이와 가족 대상으로 소리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013년부터 공간을 돌아다니며 '하울링 라이브' (facebook.com/howlinglive)라는 이름으로 실험 연주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울링 라이브는 공연장이 아닌 작은 장소를 찾아다니고 신청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어느덧 33회를 앞두고 있네요.”

“20대 후반, 음악에 열광해 홍대 앞에서 밴드 활동을 몇 년 하기도 했지만,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비트스텝〉, 2021  
몰라 방향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30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불안감이 점점 증폭됐던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늦은 나이에 창작 활동을 시작해 이미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무언가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목표보다는 계속 작품을 만들어보자는 결론을 내렸고, 그 후로 이런저런 창작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술가다' 하는 느낌이 든 적은 없습니다. 단지 어떤 작은 생각, 그 생각이 멋있지도 대단하지도 않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구상하고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재미있어 한다는 점, 게다가 누가 제 작품을 기다리지도 않고 큰 반응도

없는데 계속하는 것을 볼 때 '이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정도 생각합니다.”

“저는 기존의 사물, 기계, 시스템, 현상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면 그것을 새로운 장치나 일상의 물건에 기능을 추가하는 작업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과거 혹은 최신 기술을 되도록 단순화시켜 작품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가장 최근 작업인 〈line to line〉은 전자악기인 모듈러 신시사이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모듈러 신시사이저는 소리의 구성 요소를 케이블에 연결해 소리로 듣게 하는 방식의

전자악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시실의 관람객은 30여 개의 케이블을 악보 역할을 하는 그림과 똑같이 연결해 음악을 듣게 됩니다. 〈사운드 오브 시티〉는 2023년 세화미술관에서 열린 기획전에 출품한 작품인데요. 광화문으로 전시 미팅을 가면서 작품을 구상했습니다. 미술관은 영화관과 식당, 카페가 있는 빌딩에 있었고, 주변에는 박물관이 있는 도시다운 도시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녹음한 소리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작품이고, 탁구공을 음표라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원래는 악보와 같은 검은색 탁구공을 계획했지만, 센서가 인식하지 못해서 흰색으로 바꿨어요. 작품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 때문에 잦은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던 2021년은 산책을 본격적으로

← 〈사운드 오브 시티〉, 2023  
↙ 〈line to line〉, 2024

시작한 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산책하는 모습을 관찰하다가 걸음의 빠르기가 사람마다 다른 것을 보고 〈비트스텝〉이라는 작품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관객이 작품 위 흰 선을 밟고 걸어가면 음악적 빠르기인 BPM으로 계산해 유사한 BPM 수치의 댄스 음악을 들려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발표되고 얼마 후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정부에서 헬스장, 에어로빅 등 실내운동 장소에서의 빠른 음악을 제한해서 그런지 이 작업이 더욱 기억나네요.”

“특별한 영감이 있지는 않지만 창작 활동을 하는데 '좋은 기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영감일 수도 있겠네요. 마음이 우울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저는 작은 에너지라도 있어야 작업이 시작되더라고요. 가능하면 우울하더라도 너무 극단으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신기하게도 나이가 들면서 우울한 마음은 서서히 잦아들었어요.”

“2024년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벌써 올해의 영화로 정해버린 〈이니세린의 밴시〉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집도 가깝고 단골 술집도 같아서 매일 만나는 파우릭과 콜롬이 등장합니다. 영원히 함께 잘 지낼 것 같았던 콜롬이 갑자기 절교를 선언하게 되면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는 형식의 다름이 절교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씁쓸했습니다. 그저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콜롬도 이해되고 파우릭도 이해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쪽의 사람일까' 하면서 재미있게 영화를 보았어요.”

“작년 6월 어느 날 새벽, 제주 편백숲에서 굉장히 미묘한 새소리를 들었어요. 울해도 듣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8월 말까지 공사라고 하네요. 물론 가을에 가도 되겠지만 왠지 그 시기에는 그 새가 없을 것 같아요. 내년 6월 그 새소리를 다시 듣게 되면, 그 소리만으로 작품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작품의 이름까지 정했습니다. 〈네움새를 찾아서〉라고요.”

# 축제기획1팀 이유진 시민과 예술이 만나는 그곳에서

**당신을 소개해주세요.** 덕업일치를 이룬 이유진입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대학 생활 중에 지역 내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과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해본 것을 계기로 문화예술에 발을 담그게 됐어요. 심리학은 개인을 들여다보고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는데, 그러한 변화가 지속되기 어렵고 환경에 따라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한계를 느끼곤 했거든요. 개인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과 문화예술이 가진 힘이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서울문화재단과는 어떻게 인연이 됐나요.**  
문화예술 관련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 예술가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가까이서 마주했고, 특히 문화예술에서 공공 영역의 중요성을 느꼈어요. 자연스럽게 정부 기관과 자치구 문화재단을 거쳐 이곳까지 오게 됐네요. 서울문화재단과는 2016년 시민청 시민기획단으로 처음 만났어요. 광장 분과의 분과원으로 2년 정도 활동하다가 2018년 들어서 계약직으로 입사했고요. 그때 시민기획단으로 활동하다가 거버넌스 담당자가 돼 제가 활동했던 시민기획단을 운영했죠. 시민청에서 오래 활동한 이력 때문인지 2020년 재입사하면서 가장 처음 발령받은 부서가 예술청팀이었고요.

**재단에서 담당해온 업무에 대해 좀 더 소개해주세요.** 예술청팀에서는 시민이 아닌, 예술가들과 거버넌스 사업을 운영했어요. 인권·노동권 등 중요하지만 쉽게 다루지 못하던 주제를 두고 예술가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문화예술안전망학교'라는 프로그램이었죠. 그간 진행한 교육 방식과 주제,



진행 방식 등에 있어 다른 지점이 있었고, 참여와 활동 인증에 따라 리워드를 주는 방식이 많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기억해요. 예술청이 본격 개관하면서부터는 대관 업무도 함께 했고요. 이 업무는 문화예술 기획만 아니라 경영지원을 비롯한 타 부서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공간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기획력과 품이 든다는 것을 제대로 경험했죠. (웃음) 그리고 2022년 7월 들어 축제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재 축제기획팀에서 서울 비보이 문화 콘텐츠 사업을 맡고 있어요.** 지난 6월 열린 서울비댄스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스트리트 컬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과 공연을 운영하다보면 현장 반응이 정말 최고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동적이고, 직관적이고, 보는 누구나 친근하고 신나게 즐길 수 있거든요. 반면 현장의 뜨거운 반응이나 공연을 보며 들뜨는 기분과는

별개로 브레이킹 영역에서의 업무는 꾸준히 노를 젓듯 나아가고 있어요. 비보이 공연이나 배틀을 개최하기도 하고, 곳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죠. 드라마틱한 비보이단의 활동과 별개로 제 하루하루는 상당히 평범합니다. (웃음)

**현장에서 시민과 자주 만날 텐데, 인상 깊은 경험도 있나요.** 매 공연이 인상 깊어요. 현재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으로 활동하는 소울번츠의 공연을 보고 있으면 그 특유의 에너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맨바닥에 몸을 부딪치며 춤추다보면 상당히 아플 텐데, 이들은 어떤 보람, 희열을 느끼기에 부상 위험이 높고 어려운 춤을 추는 걸까?' 댄서의 마음과 환호하는 관객들의 모습을 모두 눈에 담으며 여러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한편으로는 그런 지점에서 누구나 쉽게 다가가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사업이 비보이 문화 콘텐츠인 것 같아 담당자로서 늘 뿌듯합니다.

**지난해에는 현대무용과 브레이킹이 협업한 제작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얼쑤, 얼쓰>는 2023년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으로 활동한 갬블러크루와 고블린파티가 함께 제작한 공연이에요. 팀원들의 도움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고,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죠. 올해 두 번이나 재공연했고요. 제작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극장 무대에 올릴 수 있는 1시간짜리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공연팀의 열망이 강했고, 저 또한 블랙박스인 대학로극장 퀴드 무대에서 브레이킹 공연을 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평균 객석 점유율 91%에 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고, 모두가 고생한 보람을 느낀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우리 삶에 예술이 깊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문화예술이 삶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 부분에서의 여유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는 쉽지 않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예술이 좀 더 친근하고, 대중적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적이라고 해서 작품성과 예술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 이후에는 재단의 역할이 없어도 예술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표를 직접 사서 보는' 작품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문화예술 행정가로서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 있나요.**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사랑하게 하라.' 이 문장을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요. 문화예술 행정에서 결국 필요한 것은, 시민이 스스로 문화예술을 좋아하고 즐기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축제 사업은 정말이지 항상 시민과 예술이 마주하도록 하는 일이지요.

**나에게 영감을 주는 것들을 이야기해볼까요.** 주로 사람에게서 영감을 얻어요. 최근에는 대학에서 교양강의를 들었던 교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역의 문화산업과 지역 소멸에 관해 두 시간 가까이 대화했죠. 누군가는 만남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비효율적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직접 사람과 만나 이야기하면서 궁금한 것을 풀어야 하는 사람이라구요. 그런 과정에서 영감과 자극을 받곤 합니다.

**스무살 서울문화재단에 축하 인사를 건네주세요.**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사업은 재단에서도 오래된 사업 중 하나로 꼽혀요. 이 사업을 거처간 선배들만 해도 거의 7명이구요. 스무살재단의 시간을 만들어온 선배들, 문화예술 행정가로 함께 고민하며 현재를 만들어가고 있는 동료들, 또 새로운 나날을 만들 미래의 후배들에게 함께 힘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재단의 과거·현재·미래를 만들어갈 동료들이 언제나 건강하고 즐겁게 일하기를 바랍니다.



# 다시 무대에 오르기 위해, 리스테이지 서울

올 하반기 예정된 서울연극장작센터 개관 후에는 지속 가능한 공연예술 창·제작 과정 전반에 걸친 지원 플랫폼으로 그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기후 위기 워크숍과 공연예술과 친환경이 접목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연예술인과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으로 예술인에게는 창작 활동과 네트워킹의 기반을, 시민에게는 기후 문해력 향상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 ‘학전’의 역사를 잇다

2023년 12월 20일, 3천여 점 공연 물품과 함께 정식 운영을 시작한 이래 많은 예술인이 리스테이지 서울을 찾았다. 지구 환경을 위한 실천부터 공연 물품 보관의 어려움 같은 현실적인 문제까지 저마다의 이유로 이곳에 위탁된 물품은 꾸준히 그 수가 늘어 현재는 4,500여 점이며 또 다른 무대에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두산아트센터에서 공연한 연극 〈명태말고 영태〉<sup>2024</sup>의 김민주 연출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리스테이지 서울에 위탁한 물품을 ‘반려소품’이라고 지칭했다. 동소문동에 새롭게 자리 잡은 리스테이지 서울의 창고는 누군가의 그런 소중한 물건으로 가득 채워진 공간이다.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키드에서 2023년 공연된 무용 〈Zzz〉와 연극 〈신파의 세기〉를 비롯해 온 가족의 일상에서 머뭇한 강강노들섬오페라 〈미술피리〉 등 공연에 사용된 의상과 소품 또한 리스테이지 서울에 새롭게 찾아온 위탁 물품 중 일부다. 새로운 위탁 물품 중에서도 그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올해 3월 문을 담은 소극장 학전의 의상과 소품이다.

1991년 3월 15일 개관한 이래 대학로의 상징이자 공연예술인의 산실로 자리매김한 학전은 올해 3월 교박 33년의 여정을 꼭 채워 문을 닫았다. 학전블루 소극장은 〈지하철 1호선〉, 〈모스키토〉와 같이 한국적 정서를 녹여낸 뮤지컬과 〈우리는 친구다〉, 〈도도〉 등 어린이와 어른 모두의 마음을 두드리는 어린이·청소년 무대를 비롯해 탁월한 작품이 여럿 탄생한 무대다. 아쉬운 이별이지만 공연예술을 사랑하는 모두에게 ‘학전’의 이름과 그 정신은 여전히 아로새겨져 있다. 무수한 학전의 무대를 거쳐간 여러 공연예술인과 관객의 추억이 축적된 850여 점의 물품이 리스테이지 서울의 창고에서 더 많은 무대와 연결될 기회를 기다리고

→ 뮤지컬 〈지하철 1호선〉(2023), 사진 제공 학전

있다. 학전의 다양한 작품에서 사용된 의상과 소품은 이달부터 누리집에 순차적으로 등록될 예정이며, 리스테이지 서울 회원이라면 누구나 대여할 수 있다.

## 기후 위기 시대, 공유 플랫폼의 자리

인류세, 기후 위기, 지속 가능성과 같은 단어가 연일 화두로 떠오른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낯설지 않은 단어이자 모두와 ‘상관있는’ 담론이 됐다. 공연예술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기후 위기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성과 실천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리스테이지 서울 역시 공연예술 공유 플랫폼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리스테이지 서울은 공연예술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연 준비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공연 물품의 재사용·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오는 9월부터는 의상과 무대 소품 외에도 부피가 큰 가구 등 대도구도 대여·위탁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킹·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인과의 협력을 강화, 지속 가능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 환경을 위한 창작 방식을 고민하는 예술인에게 리스테이지 서울이 좋은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질 물품에 새로운 가치가 더해지는 곳이자 지속 가능한 공연예술을 위한 실천의 발판이 되는 곳, 공연을 준비하는 누군가 새것을 마련하기 전 당연하게 한 번쯤 둘러보는 곳. 리스테이지 서울의 도착점은 그런 형태를 꿈꾼다.

## 리스트레이지 서울 운영 안내

### 온라인 플랫폼

restageseou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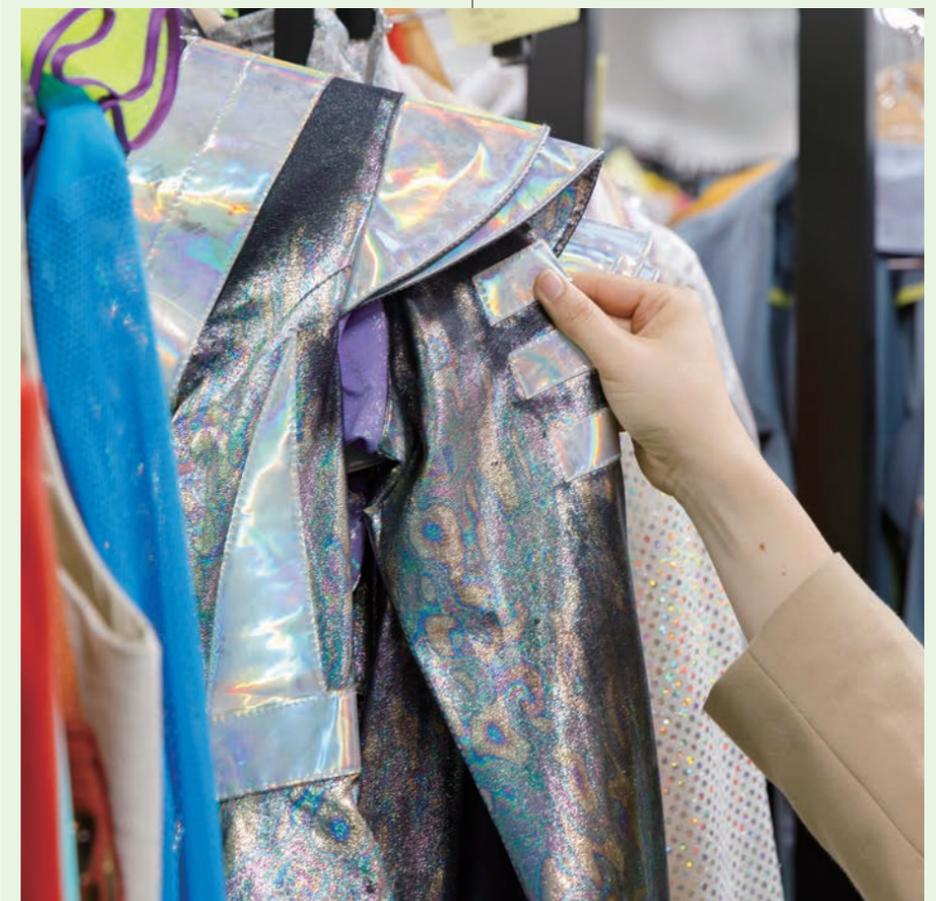
### 오프라인-의상·소품 창고

4,500여 점의 공연 물품 보유  
예약한 물품의 수령·반납  
성북구 성북로 8 서울연극장작센터 6층

### 오프라인-대도구 창고 \*9월 운영 예정

가구 등 대도구 대여·위탁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강남자원회수시설

\*창고 방문 전 예약 필수



지난 7월, 올 하반기 개관을 앞둔 서울연극장작센터에 이르게 분주함이 찾아왔다.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연 물품 공유 플랫폼 리스테이지 서울<sup>Re:Stage Seoul</sup>이 서울연극장작센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 6월 말 이사와 재정비 기간을 거쳐 7월 1일 임시 운영을 시작했다.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약을 거쳐 리스테이지 서울 창고를 방문할 수 있다.

## 더 가까운 곳에서 만나요

리스트레이지 서울은 의상·소품 등 공연 물품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여·위탁 및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온라인 누리집과 함께 오프라인 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서비스 이용 방법은 리스테이지 서울 누리집(restageseou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창고는 이용자의 편의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수동을 떠나 공연예술의 중심지인 대학로 인근에 자리한 서울연극장작센터(4호선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 부근)로 최근 이전했다.



# 예술과 기업의 협력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문화예술

최근 몇 년간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ESG이 기업의 중요한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ESG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사회 공헌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서울문화재단도 이와 발맞추기 위해 2021년 '문화예술분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트렌드 분석'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 연구를 토대로 2022년부터 ESG 경영에 맞춘 문화예술 협력 사업을 제안하는 설명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의 협업을 원하거나 새로운 사례를 보기 원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서 해마다 참여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3회째를 맞은 올해는 총 34개사가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기업과 예술가의 만남'을 주제로 미디어아트·장애예술·친환경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가·기업·재단이 협력한 사례와

새로운 제안을 보여주며 예술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 기업과 예술가 사이에서 협업의 의미를 묻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재단 사업 중에서도 신당창작아케이드와 기업 간 협력 사례가 주목받았다. 스튜디오에 입주한 공예가들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상생에서 식육문화 개선, 친환경에 이르는 사회적 실천 과제 해결에 참여하고 이를 확산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올해 재단과 처음 협업하는 포스코홀딩스는 자사 임직원 급여의 1퍼센트를 모은 후원금으로 신당창작아케이드와 함께 '친환경 공예상품 개발 지원사업'에 나선다. 재단에서 '친환경'을 본격적으로 내세운 사업은 처음으로, 재단과 예술가 모두에게 큰 도전이다. 특히 예술가들은 이를 통해 친환경 공예 작품 개발 가이드를 마련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또 한번의 성장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 후원이 예술과 사회를 잇는 가교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재단 사업뿐만 아니라, 재단을 플랫폼으로 삼아 기업과 협업한 예술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기업과의 협업이 작가의 예술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하는지에 주목한 것이다.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입주작가 '라움콘'(장애 예술가 Q레이터와 송지은으로 구성된 아티스트 듀오)은 '예술 접근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효성과 협력해 기획한 장애예술 기획전 《내가 사는 너의 세계》(2023년 10월 6일부터 22일까지)에 참여한 라움콘은 "기획전에서 발표한 '한손 프로젝트'를 통해 다수의 관객과 소통하며 장애에 대해 얘기해볼 수 있다는 점이 뜻깊었다"면서, "기업과의 협업을 계기로 장애와

→ 2024 서울문화재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 라움콘 작가가 효성과 협력한 전시에서 선보인 '한손 프로젝트'

↓ 2023 신당창작아케이드×신세계 & B 'Dining and More\_감각의 테이블' 작품



비장애 간 소통의 장이 더욱 많아졌으면 하며, 장애예술로 사회적 경계를 넘어 다양성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최성록 미디어 아티스트는 서울문화재단·포르쉐와 협업을 근거로 예술과 사회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지원이 어떻게 작품 세계와 예술가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작가는 "기업과의 협력으로 도시 공간을 예술로 바꾸고, 시민들에게 감동을 전달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재단의 예술가 발굴을 위한 서울예술지원 현황과 우수한 작품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서울예술상을 소개하고, 앞으로 계획돼 있는 글로벌 예술심 '노들섬'의 브랜드 협력, 기업과 예술단체 간 1대1 매칭 등 협력 사업을 제안했다.

특히, 이날 소개한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는 지역사회를 향한 사회 공헌 활동의 새로운 대안으로 기업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는 도심권(용산)과 동남권(서초)을 포함해 5개 공간에서 지역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이달 초 한국메세나협회가 발표한 2023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줄어든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이 회복됐으며,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총액은 약 2,088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원 총액은 조사가 시작된 1996년 이래 최대 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예술은 단순한 작가 개인의 창작물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 전달과 문화적 영향력 행사의 수단이 됐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예술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사회 공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다.



#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면 서울시민 예술학교 마스터 과정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은 2008년 노년기 시민을 위한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을 시작으로 지금의 '서울시민예술학교'에 이르기까지 사회 환경과 예술교육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오늘날 도서관·문화센터·박물관·백화점 등 생활 반경 내 다양한 공간에서 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개인이 크리에이터가 되어 예술 콘텐츠를 활발히 생성하는 등 예술은 점점 더 우리 일상에 녹아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해, 영화·게임·대중음악과 같은 콘텐츠와 비교해보면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 등 문화예술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이 확실히 존재한다.

이처럼 예술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경험의 스펙트럼이 폭넓은 현실 속에서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은 예술이 주는 '즐거움·영감'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했다. 이런 고민을 잘 담아내 2024년 서울시민예술학교는 문화예술 장르별로 재미, 감동, 취향, 표현, 질문, 새로운 관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를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맞춤형 예술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지난 5월과 6월 진행된 봄 시즌에는 문화예술 입문자를 위한 '예술교양' 프로그램과 예술 장르를 중심으로 나의 예술적 취향을 탐구할 수 있는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사전 신청자가 2천여 명 가까이 몰렸다. 여름방학을 맞이해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여름 시즌(7월과 8월) 역시 대부분 프로그램이 조기예매감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오는 가을 시즌(9월부터 11월까지)에는 앞선 시즌에서 다루지 못한 장르별 장기 집중 과정인 '마스터 과정'을 추가해 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함께하며 더 깊이, 더 넓게 경험하는 예술**  
서울시민예술학교 마스터 과정은 좀 더 깊이 있는 예술 활동을 체험하고자 하는 시민들과 재단이 가진 예술에 대한 전문성이 맞닿는 지점에서 시작했다. 2024년에는 3개 공간에서 음악(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시각예술(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연극(서울연극센터) 세 가지 장르의 예술과 해당 장르를 둘러싼 강의, 현장 학습, 감상, 체험 등을 진행한다. 14주 동안 이어지는 긴 호흡의 복합 과정을 통해 예술이라는 이야기의 확장을 시도한다.

첫째,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에서 진행되는 음악(오페라) 과정은 기초적인 오페라 감상부터 니만의 오페라 취향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구성했다. 오페라와 관련한 강사진으로 정경(성악가)·유정우(국립오페라단 이사)·손수연(단국대학교 교수)을 섭외해 공연을 만나기 전 오페라 역사 속으로 여행을 떠난다. 이후 참가자들과 함께 <카르멘>과 <라 보엠>을 감상하고 오페라를 재밌게 만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또한 특별 프로그램 '성악의 세계'를 통해 성악 강의와 연주를 듣고 예술가와의 토크에 참여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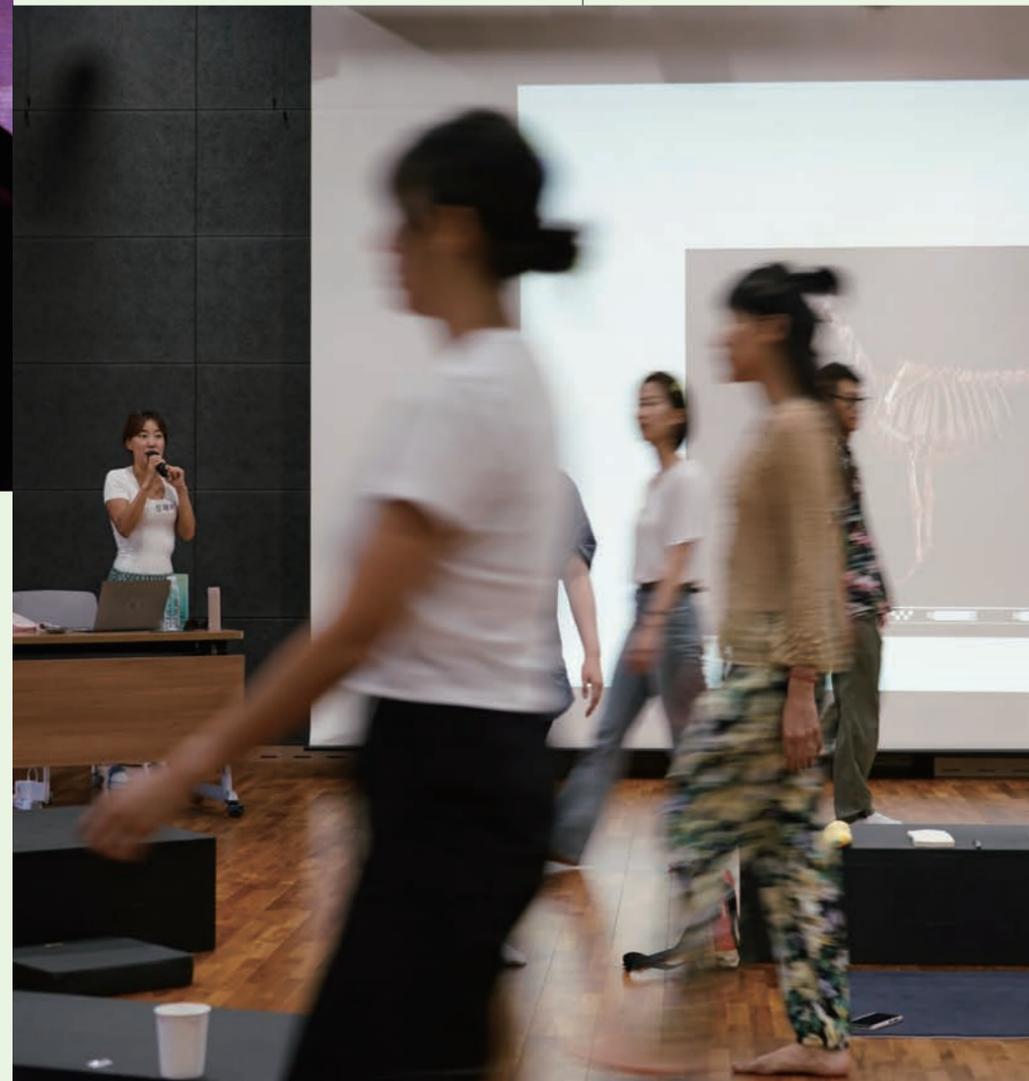
둘째, 시각예술 장르의 교육은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에서 진행된다. 미술에 취미가 있고, 긴 호흡으로 동시대 미술을 이해하기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미술과의 첫 만남으로 시각예술

전문 기자 조재연(아트인컬처)과 함께 현대미술에 대한 거리감을 좁혀보고, 전문 도슨트 김찬웅(전시해설가)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미술을 제대로 즐기고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미술관에서 일하는 현업 종사자인 윤율리(일민미술관 책임 큐레이터), 추성아(리움미술관 큐레이터)가 말하는 미술 현장에 대해 알아보고 참여자가 직접 미술을 창작해보는 워크숍(회화·세라믹)도 예정돼 있다. 미술 작품과 공간, 그리고 공간 너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며 자신만의 미술 취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서울연극센터에서 진행되는 연극 장르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안톤 체호프의 단편 소설 속 인물이 되어 연극으로 재탄생시킨다. 연출가 문삼화와 배우 강지현이 전 과정을 함께하며 실제 무대 발표를 위해 전문 배우들이 거치는 연습방법을 마스터 과정 내에 편성했다. 연극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배역 분배에서 시작해 배우로서의 움직임, 무대 음향과 조명까지 연극 제작을 위한 전반을 배우고 최종적으로 낭독 공연까지 이어진다.

장르별 마스터 과정은 참여하는 시민이 중심이 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참여자들은 14주 동안 비슷한 관심사의 사람들과 해당 장르에 관해 깊게 교류하는 기회를 가진다. 이처럼 깊이 있는 예술 활동은 단순한 여가나 즐거움을 넘어 '나'의 세계를 확장할 수 있게 한다. 그 세계가 나의 내부로 깊이 들어가는 외부 사회로 넓혀지든 그 과정에서 '나'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관심 있는 예술 장르에 대한 집중 과정을 통해 취향이 단단해지는 것도 좋고, 확고해진 나의 취향과 시각을 기반으로 사회 전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확장된 시야를 갖게 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일 것이다. 그 방향이 어디가 되든 예술은 인간을 위한 것이며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이든, 서울시민예술학교 가을 시즌의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당신의 삶이 위로받기를 희망한다.

**서울시민예술학교 마스터 과정**  
운영 | 9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모집 | 8월 19일부터  
\*서울시민예술학교 누리집(sfac.or.kr/asa) 참조



# 물아일체! 세계 유일의 극장이 된 채석장

한국과 유럽의 도시 풍경을 비교할 때가장 두드러진 차이 중 하나는 '오래된 건물의 수'일 것이다. 중세부터 르네상스, 바로크와 고전주의, 신고전주의까지 지역별로 서로 다른 시대와 풍경을 간직한 유럽의 도시들. 시간이 멈춘 듯 역사적 발자취가 곳곳에 스민 모습은 많은 여행객을 끌어당기는 요소이며, <미드나잇 인 파리>같은 영화가 성공한 배경이 됐다.

유럽은 어떻게 옛 건물을 이처럼 오래 보존할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돌로 지었기 때문이다. 석조 건축은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소실의 위험이 적고, 나무보다 온습도의 영향도 덜 받는다. 나무로 지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건물이 상당수 소실된 데 비해, 약 2천 년 전 지어진 로마 콜로세움을 비롯해 중세의 수많은 고딕 성당이 여전히 도시마다 위용을 자랑하는 것도 그 이유다.

유럽 사람들은 왜 돌로, 우리는 왜 나무로 건물을 지었을까. 유럽의 지반은 대개 무르고 쪼개기 용이한 석회암으로 이뤄져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지반을 이루는 화강암은 강도가 높아 쪼개기가 어렵다. 많은 노동과 시간이 드는 화강암보다 지천에 자라는 나무로 집을 짓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나무 건물은 전쟁과 재해로 소실됐고, 그 자리에는 가장 쉽고 빠르게 지을 수 있는 시멘트 건물이 들어섰다. 근본적인 지질 차이가 유럽과 한국 도시의 풍경을 다르게 빚어낸 것이다.

## 산업혁명으로 엇갈린 채석장의 운명

유럽에는 석조 건축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채석장이 곳곳에 존재해왔다. 고대부터 귀족의 사치품이나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등 여러 작품의 대리석을 조달한 이탈리아의 카라라 Carrara 지역 채석장, 중세부터 산업 시대 프랑스 남부의 주요 건물에 사용된 프랑스 레 보 드 프로방스 Les Baux-de-Provence의 채석장, 벨기에의 도로포장 공급처이자



유럽 최대 규모인 케나스트 채석장 Carrière de Quenast, 오스트리아 빈의 상징인 성 슈테판 성당을 비롯한 각종 건축에 돌을 낸 장크트 마르가레텐 채석장 Steinbruch St. Margarethen 등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9세기 중반부터 철강 제조 기술이 발달하며 철강이 석재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런던의 수정궁<sup>851</sup>, 프랑스의 에펠탑<sup>887</sup> 등 철강으로만 이루어진 건물들이 완공되며 새로운 건축 시대의 막이 올랐다. 경제성이 낮은 석조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20세기 초중반 채석장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문을 닫은 채석장은 황폐해졌고, 각 나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폐채석장은 20세기 후반 버려진 담배공장·성냥공장 등 여러 공장과 더불어 문화 재생 사업의 주요 대상이었다. 그러나 도시에 위치한 공장은 도서관이나 공연장 등 문화 시설로 쉽게 탈바꿈할 수 있는 데 반해, 채석장은 도시와 먼 관계로 독특한 아이디어가 필요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교의 한 채석장은 채석 구덩이에 알프스에서 흘러나온 물이 고이며 색다른 다이빙 장소로 거듭났다. 그 가운데 오스트리아 장크트 마르가레텐 채석장과 프랑스 레 보 드 프로방스 채석장의 변신은 어느 곳보다도 흥미롭다.

## 유럽에서 가장 큰 자연 속 공연장

오스트리아 빈에서 남동쪽으로 약 50킬로미터 떨어진 장크트 마르가레텐 채석장은 여름마다 야외 오페라 축제인 '채석장 오페라 Oper im Steinbruch'를 연다. 유럽에서 가장 큰 야외 공연장 중 하나인 이곳은 총 7천㎡의 면적을 자랑하며, 무대의 크기는 빈 슈타츠포퍼보다 7배 더 크다. 관객은 4,7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을 뒤흔드는 객석 규모로, 다층이나 원형극장이 아닌 단일층 형태의 극장으로는 상당히 인상적인 수치다. 돌을 캐낸 뒤 움푹 팬 자리를 객석으로 활용하고, 깎은 돌벽 앞을 무대로 활용했다. 객석을 둘러싼 석회암 절벽은 감탄을 불러일으킨다.

이 채석장은 폐쇄된 후 1961년부터 마을 주민들이 5년마다 수난극 Passion(마을마다 부활절이 다가오면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다룬 극을 올리는 전통. 독일어권에서 중요하게 전해지는 무형 문화유산이다)을 올리는 무대로 작은 역할을 해오다가, 1996년 소유자인 에스테르하지 재단 Esterhazy Foundations 에 의해 본격적인 오페라 축제 장소로 기획됐다. 여름밤 채석장 풍경이 주는 독특한 경험은 크게 히트했고, 매년 오페라 애호가들을 불러 모으는 장소가 됐다. 빈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채석장에 도착했다. 내리자마자 보이는 진입로는 생각보다 더욱

↑ 오페라가 열리는 장크트 마르가레텐 채석장의 전경 ©Andreas Tischler

근사했다. 베이지색을 띠는 석회암이 붉고 직선적인 진입로와 묘한 대비를 이뤘다. 2006년, 젊은 건축가 그룹 AWG가 이 진입로를 중심으로 리노베이션을 담당했다. 이전까지 관객은 주차장에서 객석까지 이르는 긴 동선을 기능적으로 걷기만 했다면, 리노베이션 후에는 암벽을 따라 다양한 각도를 바라보며 이동하도록 설계해 채석장이라는 장소의 경험을 첫인상부터 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램프는 높은 주차장에서 2층의 오페라 라운지로, 1층의 식음료 판매 공간으로 이어진다.

2층의 오페라라운지는 공연과 라운지 이용을 결합한 패키지 티켓을 구입한 관객이 입장할 수 있다. 6시부터 간단한 애피타이저와 음료가 제공되며, 공연 전까지 식사가 서빙된다. 메뉴는 <아이다>에서 영감을 받았다. 인터미션에는 다과가 제공되며 공연 후에도 30분간 **bar**로 기능한다. 크림색 천막 아래 자연이 아름답게 어우러졌다. 이곳을 찾는 이들이 단지 공연만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닌, 풍경과 미식, 공연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총체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 꺾여 나간 절벽을 활용한 오페라 연출

채석장 오페라에서는 여름 동안 하나의 프로덕션을 선보인다. 올해는 베르디의 <아이다>가 7월 10일부터 8월 24일까지 오른다. 이집트가 배경인 <아이다>는 특히 채석장의 풍경과 잘 어우러지는 작품이다. 연출가 타데우스 스트라스버거Thaddeus Strassberger는 채석장의 절벽 단차를 곳곳에 활용한 스펙터클한 연출을 선보였다.

↓ 채석장 오페라 <아이다>(2024) ©Wearegiving/Tommi Schmid

“연출 콘셉트는 ‘물’과 ‘불’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의 벽화에서 물과 불이라는 원소로 우리의 삶을 묘사한 것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죠.” 페스티벌의 매니징 디렉터 카타리나 라이즈Katharina Reise가 설명했다. 절벽 앞에는 피라미드와 피라오 석관을 묘사한 거대한 벽체를 세우고, 왼편으로 14미터 높이의 오벨리스크와 분수, 바닥에는 물을 깔아 흐르는 나일강을 표현했다. 이 벽체에 설계된 계단으로 인물들이 오르내리며 장관을 연출한다.

이러한 벽체를 세운 데는 실용적인 이유가 숨어 있다. “벽 뒤에 스피커와 조명 등 기계 장치를 숨깁니다. 이곳에는 백스테이지나 천장이 없어 적재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죠.” 카타리나가 덧붙였다. 벽체로 절벽과 무대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임시 백스테이지를 세우고, 무대 양옆으로는 무대미술의 일부로써 문을 두어 인물이 등장하고 퇴장하는 동선을 만들었다. 문과 벽, 그리고 절벽 곳곳에서 검투사, 무용수, 곡예사, 이국적인 의상의 하인들, 심지어 불타는 코끼리까지 등장하고 사라진다.

이날 아모나스로 역을 맡은 바리톤 김강순은 “이곳은 무대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일반 극장과 많은 부분이 다르다. 연기에 있어서도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극장에서와 같이 연기하면 멀리 있는 관객까지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동작을 과장되게 표현해야 한다”며, “음악적으로는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한 편”이라고 무대의 독특함을 말했다. 오페라 공연은 보통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지만, 이곳은 무대와 공연장이 워낙 넓은 탓에 노래 전달이 어려워 마이크를 사용한다. 이어 “나라마다 야외 오페라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곳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좋은 퀄리티를 가진 무대 중 하나다. 그래서인지 제작진도 다들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고, 분위기도 좋다”고 덧붙였다. 연출팀과 배우들은 한 달 전부터 근교의 아이젠슈타트에 머물며 작품을 준비했다고 한다. 이번 프로덕션에는 김강순 외에도 람피스 역에 베이스 박종민이 참여해 인상적인 기량을 뽐냈다.

눈을 사로잡는 번쩍번쩍한 의상은 주세페 팔렐라Giuseppe Palella가 디자인했다. 그는 한국에서도

국립오페라단과 비발디 작품에서 화려한 의상으로 눈길을 사로잡은 디자이너다. 이날 의상은 조금 과하게 느껴질 정도로 화려했지만, 여름밤의 큰 야외무대에 서니 멀리까지 눈에 띄며 빛을 발했다. 오토 드리스콜Otto Driscoll의 조명 디자인은 분수와 맞물려 물의 불꽃놀이를 방불케 했다. 분수 외에도 무용수와 스텐트맨의 기예, 벽체의 이집트 상형문자 등 프로젝션 매핑, 심지어 아이다와 라다메스가 함께 죽기로 결정하는 마지막 장면에 나타난 절벽의 줄타기 곡예까지. 예상을 뛰어넘는 볼거리로 가득했다. 깜깜한 밤 곡예사가 절벽 한쪽에서 반대편까지 불타는 장대를 들고 건너가는 시퀀스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무대는 이 모든 감각적 경험을 만끽하는 즐거운 엔터테인먼트 쇼에 가까웠다. 이런 여름밤의 경험이라면 두고두고 기억될 만하다.

눈에 띄운 것은 접근성이 좋지 않은 이곳을 매년 관객이 꾸준히 찾는 장소로 유지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다. 빈에서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들어와야 하는 이곳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 레 보드 프로방스의 ‘빛의 채석장’ 전경 ©Culturespaces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우선 넓은 부지를 활용해 교통 접근성을 높였다. 충분한 버스 전용 주차장, 주변 캠핑장과 연계, 또 빈과 아이젠슈타트를 왕복하는 자체 셔틀도 마련돼 있다. 이 일대는 채석장 외에도 초원과 와이너리, 노이저들Neusiedl 호수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채석장 오페라는 단체 관광의 일부가 되게끔 계획하기도 한다. 20명 이상 단체를 데려오면 가이드에게 무료 티켓 1장이 주어지고, 관계자는 동반 1인까지 20% 할인이 가능하다. 버스 운전 기사에게도 음료 쿠폰이 지급된다.

#### 미디어 파사드의 원조 ‘빛의 채석장’

프랑스 남부 레 보드 프로방스 지역의 돌은 결이 곱고 백색도가 높아 주변 성과 마을을 비롯한 많은 건축의 재료가 돼왔다. 1800년에 개장한 그랑 폰 채석장Carrière des Grands Fonds도 철강의 존재를 이기지 못하고 1935년 문을 닫았다. 구불구불한 산길 도로 옆에 방치된 폐채석장은 한 예술가로부터 지금의 명성이 시작됐다. 캄캄한 동굴, 복도, 거대한 기둥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시인 장 콕토Jean Cocteau는 자신의 영화 <오르페의 유언Le Testament d'Orphée>1960에 채석장의 환상적인 모습을 담았다.

2012년 문화공간 관리 운영 기업인 컬처스페이스Culturespaces가 채석장 운영을 위탁받은 뒤, 10만m<sup>2</sup>에 이르는 내부의 하얀 암벽을 배경으로 프로젝션 매핑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동안 아비뇽 교황청·오랑주 로마 원형극장 등 역사적 장소를 운영 관리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다. 내벽 전방, 그리고 기둥과 바닥에 투사되는 클림트·피카소·반 고흐의 작품이 움직이며 상상 속으로 우리를 이끈다. ‘빛의 채석장Carrières de Lumières’이다. 컬처스페이스는 ‘빛의 채석장’을 구현하고자 몰입형 미술·음악 경험을 위한 기술을 개발했다. 고화질로 디지털화한 수천 장의 작품을 거대한 벽에 투사하면 그림은 시나리오에 따라 리듬에 맞춰 움직인다. 100여 대의 프로젝터와 멀티 투사 소프트웨어를 통해 높이 16미터, 면적 7천m<sup>2</sup>에 이르는 채석장이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신한다.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한 ‘빛의 채석장’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수출까지 이뤘다. 제주도에 있는 ‘빛의 벙커’가 그중 하나다. 2012년 ‘빛의 채석장’이 문을 열었을 때 레 보드 프로방스의 연간 방문객은 23만 9천 명이었다. 현재는 연간 방문객이 77만 명에 이른다. 작은 마을이던 레 보드 프로방스는 이 채석장으로 말미암아 인기 관광지 반열에 올랐다.



\* 2024년 신청자 2차 모집 \*

# 20세부터 23세까지 연 20만원 문화관람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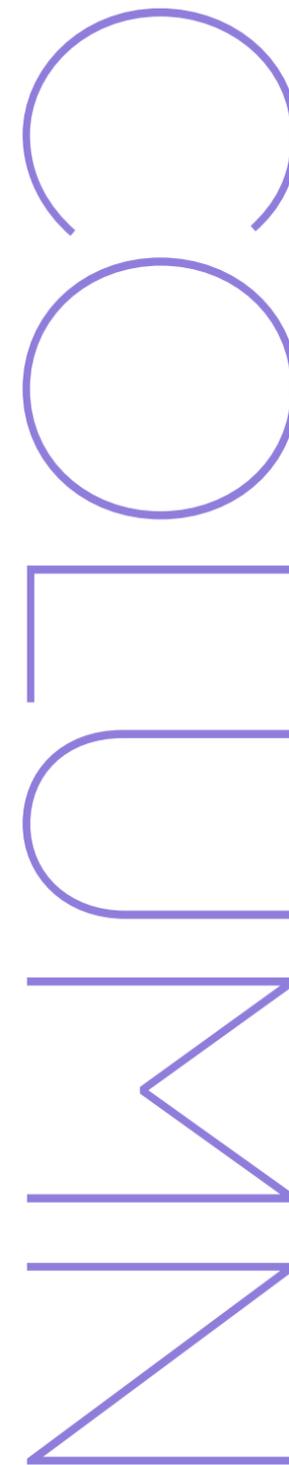
서울시가 **2001~2004년생 청년들**에게  
문화관람비 2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 8월 12일(월)부터 8월 26일(월)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신청링크



문의 1533-3427



스크린 너머의 세상  
도시의 고독을 좋아하세요?  
산책엔 플레이리스트  
사랑의 노래들  
삶의 책장을 넘기며  
들판으로 달려가자, 정답계 손잡고  
예술의 숨결이 공간에 깃들 때  
가장 맥거핀인 색, 블루  
동시대적 고전 읽기  
고전 최고의 신 스티러는?

## 도시의 고독을 좋아하세요?

이다혜 작가, 씨네21 기자

더 빠르게, 더 높이. 올림픽에 출전한 운동선수만의 목표는 아니다.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한국인 대부분이 이 구호를 내면화하고 살아간다. 남과 비교하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며 조금이라도 앞서나갈 수 있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삶에 충실하기를 기대하기보다 자기 계발의 주문에 뒤처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어느 날, 자의로 혹은 타의로 삶에 잠시 멈춤의 순간이 찾아온다. 뒤늦게 '나'에 초점을 맞춘 고민을 시작하는 순간이.

〈퍼펙트 데이즈 Perfect Days〉2023가 말을 걸어오는 순간은 반복되는 일상의 피로가 은은하지만 묵직하게 몸과 마음을 잠식하는 때다. 빔 벤더스 감독의 〈퍼펙트 데이즈〉는 공중화장실 개선 작업인 '도쿄 토일렛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발한 영화다. '완벽한 나날'이라는 제목과 달리, 가장 완벽하기 어려운 공간인 화장실을 일터로 삼은 주인공이 우리 앞에 등장한다. 그의 집에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며, 영화의 첫 장면에서 히라야마가 잠든 이른 새벽의 적요를 깨우는 것은 바깥에서 빗자루질하는 소리다. 당신과 똑같이 주인공이 하루를 시작한다. 이부자리를 개고, 이를 닦고, 화초에 물을 주고, 출근을 위한 유니폼을 입는다. 문간에서 전날 정리해둔 주머니 속 소지품을 챙기는

그는, 동전과 열쇠꾸러미, 그리고 필름카메라를 하나씩 손에 쥘다. 집 앞 자판기에서 캔 음료를 산 뒤 청소용품이 가득 든 차를 몰고 일터인 화장실로 향한다. 출근길 차안에서는 카세트테이프로 옛날 노래를 듣는다. 본격적인 업무의 시작이다. 자기 집 화장실처럼 깨끗하게 구석구석 닦고 문지르는 그의 손길은 다정해 보이기까지 한다. 점심은 공원에서 해결한다. 편의점에서 산 듯 보이는 샌드위치를 혼자 먹으면서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이 대목이다. 고개를 든 그는 카메라를 꺼내 위쪽으로 고정하고 사진을 찍는다. 그는 큰 나무 아래에서 오후의 햇살에 흠뻑 젖는다.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일렁이는 햇살을 뜻하는 '고모레비 木漏れ日'라는 단어가 영상으로 화한 듯 화면을 가득 채운다. 〈퍼펙트 데이즈〉에는 이렇게 히라야마가 무념의 표정으로 그저 햇살을 즐기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 그리고 영화를 보는 관객은 이 정적의 순간이 충만함으로 차오르는 감상에 잠긴다. 우리가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잃어버린 것이 있지 않았나? 그저 눈을 돌리면 그곳에 있는 아름다움을 무심코 흘러보내고 있지는 않았나.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영화관에 관객이 줄었다. 영화관 관람료가 비싸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소셜미디어에 '인증'하고 '자랑'할 수 없는 영화 관람의 특성 때문이라는 이들도 있다. 영화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시작된 건 그래서다. 왜 영화를 봐야 할까? 왜 '영화관에서' 영화를 봐야 할까? 모든 영화는 저마다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상영

시간 동안 일상을 까마득하게 잊게 만드는 스틸과 서스펜스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영상과 음악, 연기가 빚어내는 명상과 같은 순간들에 몰입하는 시간을 지향할 수도 있다. 목적이 훌륭한 결과로 매번 이어지지는 않고, 낮지 않은 확률로 기대가 배반당하는 경험이야말로 아마도 극장에 관객이 줄어드는 이유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의 햇살을 즐길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관객들에게 〈퍼펙트 데이즈〉는 근사한 순간을 선사한다. 극장에서 느끼는 자연의 빛과 바람과 자유의 느낌을.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과 오후의 정적을, 무엇보다 근사한 고독을.

도파민 중독의 시대라고들 한다. 새로고침으로 갱신되는 소셜미디어의 타임라인 속에서, 설탕과 밀가루로 이루어진 탄수화물과 당분 중독 속에서, 우리는 기꺼이 순간의 즐거움을 찾아만끽하려 하고 정작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찾지 못한다. 자기 자신과 오롯이 존재하는 고요한 순간이야말로 가장 드문 것이 되었다. 스마트폰만 있어도 광장에 존재할 수 있는 시대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 않는 동시대의 주인공을 만나는 일은 얼마나 희귀한가. 〈퍼펙트 데이즈〉는 히라야마가 다른 사람들과 얽히며 경험하는 희로애락도 착실히 담아내며, 그러한 순간이 그의 얼굴에 웃음을 피워내기도 하지만, 그는 마침내 혼자가 되는 순간에 이르러 진짜 감정을 얼굴에 드러낸다. 그 얼굴에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 역동한다. 관객이 없는 순간의 얼굴이 관객 앞에 펼쳐지는 순간, 그 얼굴을 읽어내려고 노력하는

순간, 보는 이의 마음속에는 그 자신의 감정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앤서니 스토프의 『고독의 위로』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혼자 있는 능력"은 학습과 사고와 혁신을 가능하게 하며 변천을 받아들이게 하고 상상이라는 내면세계와 늘 접촉하게 하는 귀중한 자질이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해도 창의적인 상상력의 계발로 치유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인간관계보다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질서를 만드는 것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창의적인 사람들도 많다." 창의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창작하는 예술가를 떠올릴지도 모르지만, 〈퍼펙트 데이즈〉의 히라야마는 창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을 만끽하고 창작물을 고요히 즐기는 방식으로(영화에는 취침 전 종이책을 차분히 읽어가는 그의 모습이 등장한다) 자신만의 창의성을 드러낸다. 공중화장실은 낭만화되기 가장 어려운 장소다. 그곳에서 일하며 일과 삶을 정갈하게 지켜내고자 하는 그의 안간힘은 때로 외부적 요인으로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그가 벗 삼는 고독은 그 흔들림에도 아슬아슬한 균형을 찾아내는 듯 보인다. 격동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고독의 자리를 지키려는 안간힘은 더 귀중하게 느껴진다.

영화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을 떠올렸다. 어둠 속 등대처럼 빛을 발하는 식당에 홀로 앉은 남자의 뒷모습이 익숙한 느낌이어서다. 늦은 시간에 식당에 홀로 앉은 그의 하루는 고단했을 것이다. 홀로 시간을



보내는 그는 어찌면 외로울 것이고 어찌면 고독을 벗 삼았을 것이다. 그의 표정을 읽을 수는 없지만, 홀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뒷모습이 어딘가 후련하고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은 <퍼펙트 데이즈>의 연상 작용으로 이 그림을 떠올렸기 때문일까. 도시의 고독이 갖는 독특한 울림을 들은 기분으로 극장을 나섰다.

## 사랑의 노래들

김호경 『플레이리스트: 음악 듣는 몸』 저자

드라마 <인간실격> 중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다. 멀어질 대로 멀어져 각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오래된 부부 정수·부정이 서로 등을 돌린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고백하는 장면.

“나 너 사랑해, 내 눈도 줄 수 있고, 심장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어.”

“나도 그래. 우리 서로 희생할 수 있지만, 좋아할 수는 없는 거야, 이제.”

서로에게 희생만 남은 그런 사랑을, 두 사람은 힘겹게 이어간다. 신형철 문학평론가의 산문을 다시 읽다 기억 속 이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앞으로 그와 나에게 오래 슬퍼할 만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 그곳에 우리가 꼭 함께 있었으면 한다. 그 일이 다른 한 사람을 피해 가는 행운을 전혀 바라지 않는다.

같이 겪지 않은 일에 같은 슬픔을 느낄 수는 없기 때문이고, 서로의 슬픔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이므로.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9쪽

나 자신을 저버리는 사랑이 아닌, 오래 슬퍼해야 할 일이 다가온다 해도 기꺼이 함께하는 사랑. 사랑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최근에 다시 내리고 있다.

십대, 이십대 때 알던 사랑이 더 이상 없을 거라는 사실에 아쉬워하던 시기가 있었다. 설렘, 호기심, 모든 걸 내던질 듯한 태도 같은 것. 돌이켜보면 정말이지 누군가를 위해 뛰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가 나를 위해 뛰든 할 수 있을까 궁금했다. 어떤 운명에 의해 혹 내가 죽음을 맞아야 한다면, 미련 없이 떠날 수도 있다는 그런 상상과 대화를 하기도 했다.

현재의 나는 누가 누구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을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다. 그저 아이의 손을 잡고, 남은 한 손으로는 남편의 손을 잡고 다가올 행복과 그 이면의 굴곡을 아주 알게, 잔잔하게 넘으며 가고 싶다. 비슷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크고 작은 성장에 기뻐하며, 서로가 잘 알지 못하는 슬픔이란 없는 채로, 조금 우습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 더 오래 살을 붙이고, 좋은 것들에 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G는 파랑』2023의 저자 김지희는 ‘행복은 론도라는 제목의 짧은 글에서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피아노와 관악기를 위한 오중주를 소개한다.

론도는 하나의 멜로디가 계속 다른 짝꿍을 데리고 나타나는 형식입니다. A-B-A-C-A-D처럼 멜로디는 변하지 않은 채 중간중간에 새로운 친구가 생깁니다. 론도는 듣다 보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세 편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G는 파랑』, 102쪽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1876년에 발표한 이 곡은 바순이 시작해 호른과 클라리넷·플루트로 이어지는 맑은 주제 선율과 경쾌한 피아노 반주가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오는, 작은 행복을 싣고 내달리는 맑은 기차 같은 귀엽고 명랑한 곡이다. 김지희의 추천곡에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19세기 무소르스키·보로딘 등과 함께 러시아 국민주의 악파로 활약하며 후대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말년에는 프로코피예프·스트라빈스키도 가르친 바 있으며, 라흐마니노프 또한 그의 풍부한 관현악 작법을 참고했다.

해군 장교로 복무하며 작곡 활동을 병행하는 독특한 이력을 지닌 이 작곡가는 마치 신세계를 열어 보이듯 아름답고 신비로운 장면들을 다채로운 오케스트라 색채로 실현하며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의 작곡 및 관현악법 교수로 위촉되기도 했는데, 기초 이론도 배운 적이 없던 그는 당시 취임 직전의 불안과 걱정을, 자서전을 통해 고백하기도 했다.

어떤 악보든 초견으로 노래할 수 있었고, 세상 모든 화성을 ‘구별’할 수는 있었지만, ‘6화음’이니, ‘4-6화음’이니 하는 용어는

생소했다. 단지 본능과 귀에 의존하여 각 성부를 올바르게 써내려가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음악 형식에 대한 이해(특히 론도 형식)도 희미하긴 마찬가지였다. 또 음악을 충분히 다채롭게 들리도록 작곡할 수 있었지만, 현악기 연주법이나 호른, 트럼펫, 트롬본이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위대한 작곡가들의 삶 2』, 333쪽

그러나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자신의 취약점을 극복하려 부단히 애써 훌륭한 이론서들을 편찬해 러시아의 상징적인 교육자가 되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음악은 흥미롭고 개성 있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한편, 보수적인 작법의 특징을 보인다. 론도 형식에 자신이 없고, 호른의 잠재력을 잘 모른다는 작곡가가 쓴 론도 형식의 실내악곡을 듣고 있으니 웃음이 난다. 반짝이는 창조적인 순간의 물입이 귀로 느껴진다.

## 온기의 사랑

쇼팽과 라흐마니노프 같은 작곡가들이 쓴 농밀한 사랑의 장면들을 소개하려다 그보다 조금은 현실 세계에 발붙인 사랑의 감각을 재생해본다. 음악감독 요한 요한슨이 참여한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2014 사운드트랙은 21세기 영화음악사의 위대한 기록 같은 작품이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실존 인물의 일대기를 그린 따뜻한 영화인데, 이 따뜻함이라는 정서에 입체감,



ForLove 플레이리스트

시간성 같은 것을 부여하는 게 요한 요한슨의 음악이다. 관객은 이 음악을 들으며 아득함과 애뜻함, 환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위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태도가 만드는 힘 같은 것을 발견해 느낄 수 있다.

사운드트랙의 작법은 대체로 고전음악의 결을 따른다. 영화 <컨택트Arrival>2016나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2015에서 선보인 전위적인 음향 실험과 정반대에 있는, 선율적이고 화음이 풍부한 작품이다. 영상 없이 음악으로만 감상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눈도 주고 심장도 주고 뛰든 다 줄 수 있는, 희생하고 포기하는 사랑이 아닌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기꺼이 함께 나누는, 눈의 고통과 심장의 고통을 조금씩 나누어 짊어지며 희망을 그리는 그런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의 순간들 안에 있을 법한 행복이 두 작품 속에 흐른다.





## 들판으로 달려가자, 정답게 손잡고

손정승 『아무튼, 드림』 저자

삶의 반대편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다면 나를 포함한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죽음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여기 삶의 반대편은 '들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의 글은 과연 들판을 뚫 뚫아서 길이 아닌 곳에 길을 낸 것도 같았고, 잠시 멈춰 내가 선 곳을 가늠해 보기에도 좋았다. 책의 제목은 『삶의 반대편에 들판이 있다면』<sup>2024</sup>(한겨레출판)으로, 문보영 시인이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열리는

국제 창작 프로그램IWP에 참가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한 계절을 나며 쓴 일기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각국을 대표하는 소설가·시인·번역가가 모여 3개월간 문학적 교류를 나누고 헤어지는데, 이에 관한 또 하나의 유명한 일기로는 30년 전 최승자 시인이 쓴 『어떤 나무들은』<sup>1995</sup>이 있다. 문 시인은 큰 트렁크에 읽을 책이라곤 최승자 시인의 아이오와 일기만 달랑 챙겨 떠난다. 그리고 자신의 일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한다. "본 행사는 2시간인데 뒤풀이는 3년 같은 글"<sup>(247쪽)</sup>이라고. 오히려 좋다. 내가 언제 아이오와를 가보겠는가.

아이오와는 40도다. 아이오와에 도착했을 때 너무 추웠다는 최승자 시인의 일기만 믿고 가을, 겨울옷을 잔뜩 챙겼는데 8월의 아이오와는 폭염이다. 30년간 진행된 지구

온난화를 계산에 넣지 못한 나의 불찰이다.

『삶의 반대편에 들판이 있다면』, 25쪽

책을 다 읽은 후엔 누구에게 이 긴 일기를 강력히 권할 수 있을지 생각해봤다. ① 문보영 시인의 펜 ② 타인의 일기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 ③ 이중언어자 ④ 밭 디딘 곳을 떠나고 싶은, 혹은 이미 떠나 있는 사람 ⑤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들에 대해 고찰해보고 싶은 사람.

모두 해당된다. ① 펜이라면 무조건 반길 장편 작품이라는 점에서 ② 읽기만 해도 재밌는 타인의 일기라는 점에서 ③ 모국에 살면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비탈출 작가와 다른 나라로 떠나 제2의 언어를 사용하는 탈출 작가 사이에서 지내며 쓴 글이라는 점에서 ④ 밭 디딘 곳을 떠나고 싶어 하던 이가 썼다는 점에서 ⑤ 평소엔 인지하지도 못한 정체성이 나를 대표하게 되는 낯선 곳에서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나는 저 다섯 유형 모두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어졌다. 언뜻 생각하면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 낯선 언어 속에서 지내는 일이니 시인의 상황이 딱 난감할 것도 같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가장 자유롭게 지낸다. 강해지지 않기로 하고 변하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이미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일기엔 드라마틱한 사건이 없다. 한 계절을 나는 동안 보고 듣고 먹고 나는 것들의 기록이다. 그런 내용들로 마지막 장까지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299쪽짜리 일기를 써내다니. 시인은 시인이다 싶었다. 밑줄을 긋게 되는 표현도 많았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표현인데, 읽는 순간 너무

이해되는 표현들이다. 가령 이런 것들. '햇빛에 발가락을 담근다', '날씨가 얼룩덜룩하다', '문 밑으로 빛 밑줄이 그어졌다'... 아이오와에서만 벌어질 수 있던 아름다운 오해들도 있다. 친구의 이름 오릿Ort을 처음엔 orbit(궤도)으로 잘못 들은 일이라든가, 밤에 사람들이 달을 보러 가자고 할 때면 자기를 보러 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던가. 언어를 다루는 서른 명의 사람이 서른 개 넘는 언어 사이에 있으니, 머릿속에서 매분, 매초 빅뱅 같은 언어의 충돌이 있었을 테다. 이들은 서로의 언어를 완벽히 구사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아예 모르기도 한다!) 나의 단어가 상대의 단어에 반드시 1 대 1로 매칭되지 않더라도 서로를 충분히 아끼고 이해하며 그들만의 우주를 만들어 공전한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엑소포닉 작가들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 전 그들이 특출하거나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언어를 조금 더 세심하고 입체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 여러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처럼 세상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반대편에 들판이 있다면』, 296쪽

한국에서 시인의 삶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 옹크리는 편이 편했다는 걸 보면 아이오와에서 낯선 언어를 구사하며 "내가 두 명이 될 수 있는 가능성"<sup>(191쪽)</sup>을 알아버린 순간의 기쁨을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다소 납작했던 삶을 풍선 불 듯 후속 불고 모든 감각을 바짝 세워가며 자신의

세상을 팽창시켰을 시인의 모습을 보지 않았지만, 본 것만 같다. 너른 들판에 부는 바람을 닮은 미세한 변화들이 책장을 넘길수록 구체적으로 느껴졌다.

아이오와 사람들은 매일 아침 삶을 꾸리기 위해 다운타운으로 향한다. 다운타운 반대편에는 너른 들판이 있는데, 시인은 그걸 보고 '삶의 반대편에는 들판이 있다'고 말한다. 들판은 사람이 걷게 만든 길은 아니지만 걸어도 편찮은 길이라며, 사람의 길이 아닌 길을 충분히 걸어야 사람이 걸도록 만든 길도 걸을 수 있게 된다고 믿고 싶다면서 말이다. 아이오와는 그 자체로 시인의 들판에 새로 난 길이었을 테다. 앞으로 펼쳐질 무수한 길을 뚝뚝뚝뚝 잘 걸을 수 있도록 돕는 길. 그 길에서 헤매고 걷고 뛰고 망설인 흔적은 언뜻 보면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다음 사람에겐, 적어도 미래의 자신에겐 분명 한 방향을 가리키는 선명한 지도가 되었을 테다.

타인의 일기를 읽고나면 꼭 그다음 순서로 내 일기도 펼쳐보고 싶어진다. 나의 들판인 오랜 일기장을 펼쳐본다. 들판의 아침 이슬이 내 어깨에도 묻어나는 기분이다. 어떤 장은 여전히 축축하고 어떤 장은 어느새 날이 갔으며 어떤 장은 분명한 길이 되었다. 정말 모르겠다고 여긴 순간들이 모여 지금을 가리키고 있다니. 들판에 오늘치 길을 내며 문득 깨달았다. 나는 요즘의 나날이 만족스럽고 더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지금의 시간도 또 하나의 들판이라고 말이다.

\*글의 제목은 동요 '들판으로 달려가자'의 구절을 빌렸습니다



# 가장 맥거핀인 색, 블루

박이현 럭셔리 매거진 피쳐 디렉터

여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색은 '블루'다. 아마 청량감 때문이겠지. 보는 것만으로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시원하다. 그러나 블루가 항상 긍정적이진 않다. 이 단어는 때때로 활기가 부족한 상태를 표현하기도 한다. 예로, 피카소가 고독했던 시절에 그린 그림을 보면 온통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다. 블루는 그야말로 동전의 양면과 같기에 블루와 관련한 콘텐츠는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수다. 블루가 무더위에서 탈출하게 해줄지, 아니면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할지는 각자 해석에 따라 달라질 테다. 최근 이러한 반전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블루가 '맥거핀 Macguffin' (영화에서 중요한 것처럼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줄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극적 장치)처럼 작동하는 전시를 소개한다.

현재 문화역서울284에선 감각을 자극하는 소리로 가득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그룹 디스트릭트의 창립 20주년 전시《reSOUND: 울림, 그 너머》(8월 25일까지)가 진행 중이다. 전시실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하는, 그리고 들리는 몰입형 미디어 설치 작품《Ocean》의 푸른 파도가 금세 콧잔등에 맺힌 땀을 식혀줘 일단 한숨을 돌린다. 그런데 3등 대합실은 흡사 납탕 특집극 분위기다. 철후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은 독일 예술 콜렉티브 모놈MONOM의 4D 사운드 작품《Imagined Worlds》로,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소리로 구현했다. 천장과 바닥에 스피커를 설치해서인지 360도 전 방향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와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작품도 있다. 네덜란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필립 스튜디오Fillip Studios의 인터랙티브 작품《Tactile Orchestra》는 부드러운 털로 뒤덮인 벽을 손으로 쓰다듬으면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와 마음을 차분하게 한다. 귀빈실에선 ASMR 크리에이터 미니유의 사운드와 인영혜의 섬유 조각으로 이뤄진《Floating Mind》를 만날 수 있다. 폭신한 섬유 덩어리에 앉아 나른한 소리를 듣고 있으니 절로 힐링이 된다. 한낮에 서울로7017을 걷다가, 혹은 서울역 플랫폼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잠시 휴식이 필요하다면 문화역서울284에 방문해보자.

다음으로, 파라 알 카시미Farah Al Qasimi의 개인전《Blue Desert Online》(8월 11일까지)이 소격동 바라캇 컨템포러리를 수놓고 있다. 작가는 오랜 시간 사진·비디오·퍼포먼스 등을 넘나들며 아랍 국가의 탈식민주의 권력 구조, 성별, 취향에 대한 사회적 비평을 시도해왔다. 그가 바라캇 컨템포러리 전체를 블루로 물들인 건 아니다. 정확히는 작품 곳곳을 푸른 빛으로 채워 넣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청색에서 기대하는 통쾌함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 MMORPG《검은사막》을 모티브 삼은《Blue Desert Online》이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 비롯되는 불안·도피·환상 등을 포착한 사진과 영상으로 구성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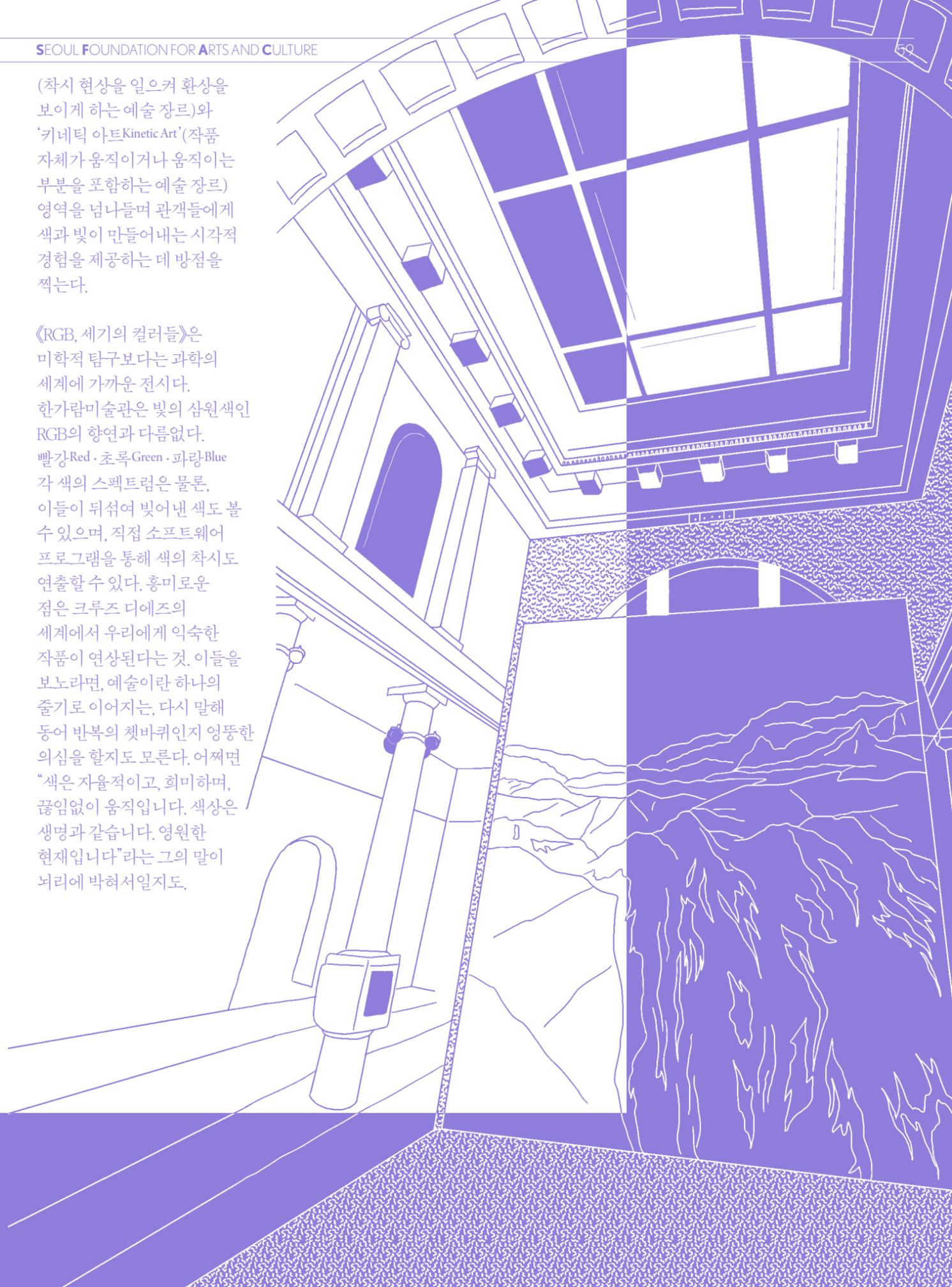
까닭. 이는 우울함을 서술하는 영미권 문장인 'Feeling Blue'와 연관이 있으리라 추측해본다.

다행(?)인 점은 작품이 심연으로 침잠하지 않는다는 것. 전시 서문처럼 고요하지만 매혹적이고 불안한 작가의 이미지들은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욕망을 어디까지 착취하고 허용할지, 그리고 어디서 휴식을 찾아야 할지 끊임없이 묻는다. 대표적으로, 대형 벽지 위에 스마트폰, 알루미늄 액자, 평면 모니터 등을 배치해 광고를 형상화한《Dragon Mart Light Display》2018는 걸프 지역의 변화하는 경제와 문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묻는다. 또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는 여성을 담아낸《Anood Playing Sims》2023는 가상 세계가 오늘날 무릉도원이 아닌지 고민하게 한다. 더불어 "당신은 한동안 잠들어 있었고, 편안했는지" 묻는 목소리가 들리는 영상 작품《Signs of Life》2023는 우리 삶이 산천과 연결돼야 함을 피력하는 것 같다. 정녕 건강한 현실이란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인 것일까.

마지막으로,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선 크루즈 디에즈Carlos Cruz-Diez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RGB, 세기의 컬러들》(9월 18일까지)이 열리고 있다. 1923년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난 디에즈는 예술적 창의력과 과학적 호기심을 결합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창조한 작가다. 그는 종이 위에 물감을 섞는 대신, 여러 색의 선을 일정한 규칙으로 반복해서 배치하거나 여러 각도로 겹쳐놓는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한다. 그의 결과물은 '옵아트Optical Art'

(착시 현상을 일으켜 환상을 보이게 하는 예술 장르)와 '키네틱 아트Kinetic Art'(작품 자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부분을 포함하는 예술 장르) 영역을 넘나들며 관객들에게 색과 빛이 만들어내는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RGB, 세기의 컬러들》은 미학적 탐구보다는 과학의 세계에 가까운 전시다. 한가람미술관은 빛의 삼원색인 RGB의 향연과 다름없다. 빨강Red·초록Green·파랑Blue 각 색의 스펙트럼은 물론, 이들이 뒤섞여 빚어낸 색도 볼 수 있으며, 직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색의 착시도 연출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크루즈 디에즈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이 연상된다는 것. 이들을 보노라면, 예술이란 하나의 줄기로 이어지는, 다시 말해 동어 반복의 쳄바퀴인지 엉뚱한 의심을 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색은 자율적이고, 희미하며,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색상은 생명과 같습니다. 영원한 현재입니다"라는 그의 말이 뇌리에 박혀서일지도.



## 고전 최고의 신스틸러는?

전영지 공연 칼럼니스트·드라마터그

‘올해가 셰익스피어에 관한 특별한 해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셰익스피어의 공연이 잦다는 느낌이다. 여름에만 해도 <햄릿>이 두 편(6월부터 9월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 7월 명동예술극장), <맥베스>가 세 편(6월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7월 신촌극장, 7월과 8월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올라갔으니 말이다.

사실 ‘셰익스피어 열풍’은 국내에서 특별히 예외적인 현상은 아니다. 최근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셰익스피어 희곡 38편 가운데 한 해에 적으면 20편, 많으면 50편 안팎이 공연으로 만들어진다.”(한겨레신문, 2024년 6월 26일 자) 그 까닭에 대해서 누구는 셰익스피어가 선보이는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다수의 관객에게 소구되기 때문에 기획적 측면에서 ‘안전한 선택’이라고 하고, 누구는 셰익스피어 작품의 내용이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혁신적 연출’의 재료로 알맞다고도 한다. 허나 이 모든 지적에 동의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햄릿>과 <맥베스>를 관람하려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거창한 이유가 있던 것은 아니다. 그저 칼싸움이 많아도 너무 많아, 반복되는 싸움 구경이 피로했을 뿐이다.

개인적 취향에서 비롯한, 지극히 사소한 불평을 토로하려는 것은 아니다. 칼싸움을 맥없이 지켜보다 찾아든 질문을 나누고자 함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연극에 갈등conflict, 특히 적나라하게 물리적인 갈등이 이토록 빈번하게 등장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어떤 의문으로 이어졌으며, 그리하여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와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함이다.

영국 연극학자 니컬러스 리다우트Nicholas Ridout에 따르면, 극장은 인간이 서로서로 죽이는 대신 갈등을 상징적으로 해결하는 장소다. 극장은 “인간이 서로서로 얼굴을 맞대고는 그렇게 서로 대면하는 것을 즐기거나 진저리치는 것이 전부인 장소”라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그는 “극장 안에 동물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무대 공포증, 동물, 그리고 다른 연극적 문제들Stage Fright, Animals, and Other Theatrical Proble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그렇다면, 극장에 동물의 자리가 마련되면, (물리적) 갈등 없는 연극이 가능해질까? 갈등에 대한 연극의 발화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나는 동물이 등장하는 고전 희곡을 검색했고, “고전 최고의 말 없는 신스틸러the most scene stealing non-speaking role in the canon”, ‘게Crab’와 만날 수 있었다.

‘게’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베로나의 두 신사The Two Gentlemen of Verona>1589-1593에 등장하는 개dog다. 사실 ‘게’는 무대에 등장하기는 하나, 대사도, 의미 있는 행동도 없는 캐릭터로서 오랫동안 비평사에서 배제된 존재였다. 아니, <베로나의 두 신사> 자체가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 가장 약한 작품’으로 여겨져, 셰익스피어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생략되었다는 설명이 더 정확할 것이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절친 사이인 ‘베로나의 두 신사’, 프로테우스Proteus와 발렌타인Valentine은 사랑에 대해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 프로테우스는 연인 줄리아Julia 생각뿐이었으나, 발렌타인은 사랑보다 견문을 넓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러나 밀라노에서 재회한 두 사람은 공작의 딸 실비아Silvia를 사이에 둔 연적이 된다. 친구와 연인 모두를 배신한 프로테우스의 계략으로 발렌타인이 밀라노에서 추방되자, 실비아는 발렌타인을, 프로테우스는 발렌타인을 쫓는 실비아를 찾아 나선다. 그사이 남장하고 프로테우스를 찾아 밀라노에 온 줄리아 또한 프로테우스의 시종으로 그와 함께 길을 나섰기에,

서로가 서로를 쫓는 네 사람은 숲에서 다시 조우하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두 쌍의 연인이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원래의 짝과 행복하게 결합하는 것으로 극이 끝난다. 갑자기? 그렇다, 작품 속 등장인물들은 너무도 갑자기 사랑에 빠지고, 갑자기 배신하며, 또 갑자기 서로를 용서한다. 셰익스피어의 첫 작품이라고 추정되기도 한다니, 처음은 누구나 서툰가 싫어진다.

그러나 ‘게’를 주목해 읽으면—여전히 이상하긴 하지만—좀 더 재밌는 독해가 가능해진다. ‘게’는 프로테우스의 어리숙한 하인 룬체Launce의 개다. 룬체는 종종 ‘게’를 데리고 등장해 ‘게’를 짝사랑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자기가 부리는 개나 종에게 이렇게 해주는 주인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글썄, 맹세라도 하겠어요. 놈이 푸딩을 훔쳐 발에 족쇄를 찬 적도 있어요. 모른 척했으면 놈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또 한번은 놈이 거위를 물어 죽여 제가 대신 목에 칼을 찔던 적도 있어요. 모른 척했으면 놈은 정말 혼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놈은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4막4장) 지난 일은 모두 잊은 무정한 ‘게’. 그럼에도 이 개를 미워할 수 없는 마음을 하소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게’의 사랑일 터. 프로테우스뿐 아니라 줄리아도, 발렌타인도—자기 자신을 배신하고—변덕을 부리며 사랑한다. 프로테우스가 말하듯 “사랑의 봄[은] 태양이 아름답게 비치다가도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모든 걸 날려 버리[는] 변덕스런 4월 날씨의 영광과 같아”, 네 명의 순정한 젊은이들은 어리석게도 그저 ‘사랑’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실 내가 사랑의 변덕에 이렇듯 너그러워진 것은 순전히 ‘베라’(6세, 래브라도 리트리버) 때문이다. 만난 지는 이제 석 달이 채 안 됐지만, ‘베라’를 만나기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다. “개는 나고, 나는 개다”라는 룬체처럼, “베라는 나고, 나는 베라다”라고 외치고 싶을 지경이다. 그러나 베라는 꼭 ‘게’처럼 무정하여, 한없이 다정하다가도 이내 새로운 사랑에 빠진다. 계곡을 만나면 계곡을, 공을 보면 공을, 고양이가 지나가면 고양이를 사랑한다. 나와외의 시간은 완전히 잊었다는 듯, 새로운 사랑으로 돌진한다. ‘베라’의 이런 분명하고 솔직한 마음은 나를 번번이 낙담시키지만, 또 그 마음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내 마음 또한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애타게 서둘러 뛰쳐나가는 마음도, 민망할 정도로 쉽게 토라지는 마음도 ‘베라’에게는 전할 수 있다. 인간에게는 애써 숨긴 마음들을 ‘베라’에게는 다 드러내게 되는 것. 항상 이렇게 사랑하고 싶었던 것 같다.

‘베라’와 섞여 들어가는 내 삶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지독하게 인간적인 예술’인 연극에 이제껏 극장에서 배제된 ‘소중한 타자’들이 다시 찾아들면 ‘연극의 갈등’은 얼마나 풍성해질까? 혹 그럴 때야 비로소 사랑하고, 배신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우리 일상의 고투를, 그리고 그 일상을 사는 우리의 얼굴을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지는 않을까? 일찍이 도나 해러웨이Donna J. Haraway가 제안한 ‘함께 반러종 되기becoming-with companion species’를 통해 만들어갈 ‘대안적 세계’를 위한 연극적 실천을 상상한다.

\*‘Crab’의 철자를 거꾸로 읽으면 ‘짖다(bark)’의 발음과 유사하다. 말장난(pun)을 즐겨 하는 셰익스피어 특유의 선택이다. 이 글이 참조한 번역본인 『베로나의 두 신사』(김종환 역, 지만지드라마, 2019)의 경우에는 음차하여 ‘크라브’라고 썼으나, 이 글에서는 ‘게’로 표기하고자 한다. 셰익스피어는 분명 ‘Crab’이 한국어로 ‘게’라는 사을, 자신이 ‘게’라는 이름의 개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았다면 크게 기뻐했을 것이다.



#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 ON VACATION

얼마 남지 않은 휴가를 앞두고 저는 마음이 몹시 들떠 있습니다. 덥고 습한 요즘 날씨를 버티는 힘이네요. 저는 다녀오겠습니다만 8월에 떠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이번 호를 선물합니다.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장

### EPILOGUE

아주 오랜만에 순도 100% 재미만으로 가득한 2주간의 제주도 위케이션을 가졌습니다. 한라산의 좋은 기운을 듬뿍 전하면서 독자 여러분들도 신나고, 즐겁고, 건강한 8월 보내세요!

안미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 ON THE WAY

전민정 편집위원



### CONTRIBUTORS

신예슬: 저 '성덕'이에요. 인터뷰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선생님 지휘하는 공연 처음 본 게 고등학생 때더라고요.

최수열: 지휘봉 챙겨와 달라고 하지 않으셔서 얼마나 좋던지...

김태희: 2018년 여우락 백스테이지에서 선생님 보고 반했잖아요. 언젠가 인터뷰 꼭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성사됐네요.

더위를 뚫고 모인 주말이지만, 저마다의 이유로 즐거운 인터뷰 아니었을까요. 최수열의 "해야만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응원합니다.

김태희 디자이너끼 에디터



###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대학로예술극장 문래예술공장 북서울시립미술관 블루스퀘어 상명아트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용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장애인예술창작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중앙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QUAD

2024 QUAD  
SUMMER FESTA

KIRARA → 8.22

8.23 ← GLEN CHECK

NOHYS → 8.24

8.25 ← HAEPAAARY

WWW.QUAD.OR.KR

QUAD SUMMER FESTA

2024.8.22.THU

대학로극장



—2024.8.25.SUN

퀵드